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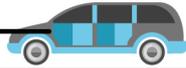
도시의



일터에서



시간을



서울의  
24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찾아서



김경희 | 변미리 | 김종진 | 엄규숙 | 황윤옥 | 이동연 지음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도시의

일기 짜리

시간을

찾아서

서울의 24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김경희 | 변미리 | 김종진 | 엄규숙 | 황윤옥 | 이동연 지음



## 서울이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우리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시간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시간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몇 시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인생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시민들은 늘 바쁘고 부족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는 염원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판타지물이 대중문화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

다. 판타지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되돌리고 싶거나, 못 다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시간이 주어지길 바라는 염원의 발로일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일터, 학교, 가족, 문화공간에서 시간이 어떻게 조직되고 소비되는지, 그런 시간들은 어떤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엮은 책이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2015년 9월에 개최된 함께서울포럼의 기획 주제였던 시간에 관한 여섯 명의 발표문들을 보완하여 1년 만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서울포럼은 서울시 정책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모여 서울시 정책을 토론하고 제언하는 느슨한 공부 모임입니다. 포럼의 주제를 시간으로 삼았던 배경에는 그동안 교통·환경·건축과 같이 공간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던 도시정책을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로 다른 부문의 전문가이지만 앞으로 대도시 서울의 정책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이상적인 정책 제언들일 수 있지만,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한다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쁜 도시생활에서 한숨 돌리고, 시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포럼 발표로만 마무리되었을 이 작업을 책 출판으로 추천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럼 운영과 행정 지원을 해주신 김인희 실장님, 포럼 진행과 출판의 전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출판의 결실을 맺게 해준 전말숙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김경희



| 프롤로그 | 서울이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 005

#### Chapter 01

###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김경희

서울이라는 공간에서의 사회적 시간 • 013 | 일하지 않는 자, 쉬지도 마라? • 019 | 그림자시간을 양지로 • 026 | 24시간 사회의 도래 • 031 |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권리 • 037

#### Chapter 02

### 서울의 24시간을 해부하다

• 변미리

도시의 시간빈곤자들 • 045 | 행복한 시간정책의 지표, 생활시간조사 • 054 |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고단한 서울의 삶 • 059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시간정책 • 069

#### Chapter 03

### 시간의 정치가 필요한 시간

• 김종진

25월에 빼앗긴 서울의 잠 • 077 | 자본과 기업이 잠식한 시간 • 080 | 일하며 병들어가는 사람들 • 088 | 폭스바겐이 보여준 것 • 098 | 시민들의 시간 되찾기 실험 • 108

## Chapter 04

### 엄마의 시간은 어디에, 돌봄노동

• 엄규숙

여성에게 너무 과밀한 시간 · 115 | 돌봄노동에서 시간갈등을 초래하는 것들 · 125 | 지역사회가 직접 만들어내는 시간정책 · 130 | 그림자시간에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시간으로 · 136

## Chapter 05

### 기적을 이룬 시간, 기쁨을 잃은 시간

• 황윤옥

기-승-전-공부시간 · 141 | 시간의 설계자들-엄마와 학원 그리고 교육부 · 151 |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157 | 시간의 재구성-전환의 시간 · 173 | Best One이 아니라 Good One · 188

## Chapter 06

### 예술가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 이동연

차이와 반복으로서의 예술 시간 · 197 | 득음, 혹은 에피파니의 시간 · 206 | 창작의 시간인가, 노동의 시간인가 · 214 | 예술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223 |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조건 · 233

| 에필로그 | 이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줄 때 · 238

| 참고문헌 | · 242



Chapter 01

---

#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김경희 ·

---





# 서울이라는 공간에서의 사회적 시간

## 시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가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시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시간을 조직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개인이 경험하는 노동의 세계와 일상에서의 시간도 그 내용이 달라진다(주은선, 김영미, 2012: 244). 이 책에서는 이런 특징을 ‘시간의 사회성’이라 부르고, 서울시민의 삶의 현

장인 일터, 가족, 학교, 문화공간에서 이를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시간의 사회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이며, 시간의 존재형태, 시간규범, 시간의 정치적·문화적 효과가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제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문화연구학자 엘리야스Norbert Elias는 시간분석과 연구는 시계로 파악되는 관습적인 측정이 아니라, 시간을 둘러싼 규범, 문화, 대상, 제도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Elias, 1986: 7).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사회적 시간인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삶은 시계 중심의 직선적<sup>linear</sup> 시간관념에 지배받고 있다. 시계가 발명되기 이전 사회에서는 노동과 여가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시간이 분, 초 단위로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가 배가 고파서 울면 젖 먹 을 시간이고, 닭이 우는 시간을 새벽의 시작이라고 인식하는 등 몸의 리듬과 감정의 요구에 맞춘 시간을 살았다.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고 일의 지위가 결정되기보다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중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시계는 시간을 분, 초, 시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여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사물로 만드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숫자로 측정 가능한 시계는 세계적으로 시간을 표준화할 수 있다. 시간의

표준화는 시간절약, 시간관리, 시간규율, 일과 여가의 구분, 상품화를 가능하게 했다. 제루바벨Eviatar Zerubavel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관리와 통제 도구인 학교의 시간표나 일터의 일정표는 중세 수도원의 유산이라고 한다. 중세의 성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의례와 사제들의 임무를 순서, 기간, 표준시점을 정해서 수행하도록 강제했으며, 수행의 과정을 사회화시켰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런 수도원의 유산은 세속적인 노동조직의 원리로 수용되어 시간을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도왔고, 청교도주의와 결합하여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Adam, 1995: 114-116).

시간의 표준화는 시간을 다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립적인 가치 산정을 가능케 하여 효율성과 수익을 계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시간을 숫자로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이 화폐로 환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통상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테일러Frederick W. Taylor의 노동자의 시간동작연구나 구소련의 시간일지를 활용한 집단농장의 생산성 측정과 계획경제의 수립 등은 시간의 표준화를 통해 가능했던 일이다. 표준화된 시간의 주요한 특징은 맥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계가 가리키는 8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한국의 시간인지, 미국의 시간인지 알기 어렵다. 각종 입시는 시간의 탈맥락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각종 시험은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형태의 시험이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하는 필기시험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배운 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재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셈이다(Kreitzman, 1999: 126). 이러한 평가는 시간의 표준화에 의해 개인적인 차이, 지역적 차이, 특정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효율성과 효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 노동-돌봄-여가시간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간관념은 직선적 시간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생명을 생산하고 사람을 돌보며, 여가와 휴식을 통해 삶을 재생산하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런 시간은 생성적이고, 과정과 결과가 하나로 묶여 있으며 사람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징을 갖는데, 순환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과 창작 활동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화폐화된 직선적 시계시간에만 경도되어 있는 이유는 순환적 시간이 직선적 시간에 위계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되레Klaus Dörre는 자본주의 생산영역은 재생산영역의 순환적인 시간체제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하

고 있다고 논의한다. 이 책에서는 시계시간 혹은 경제시간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순환적 성격의 시간을 그림자시간이라 명명한다. 역사적으로 출산과 돌봄의 담당자였던 여성들의 시간은 그림자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군의 학자들은 기존의 직선적 시간관념에 의존해온 경향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시간 혹은 성별화된 시간을 가시화하는 노력들을 해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은 크게 노동-돌봄-여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영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 영역의 시간의 양과 질은 시간에 대한 규범과 제도들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다. 노동중심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이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돌봄과 자유시간이 거기에 맞춰 줄어들고 그 질도 낮아지게 된다. 돌봄과 자유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한국과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휴식에 시간이 쓰이며, 돌봄의 시간은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치중될 것이다. 이 때문에 여가와 돌봄의 순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책은 우리의 삶에서 시간의 사회성을 규명하여, 직선적 시간관에 입각한 노동세계가 돌봄과 여가로 구성된 생활세계를 어떻게 위계적으로 포섭하여 삶의 질을 훼손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잃어버린 돌봄과 여가의 시간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이

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노동시간에 종속되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자유시간과 그림자시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중심의 시간이 가져온 24시간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하기 위한 도시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글을 맺을 것이다.



# 일하지 않는자, 쉬지도 마라?

## 오래 일하고 적게 버는 한국인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노동하는 나라 중 하나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2위로 2,113시간이며, 회원국 평균 1,776시간보다 347시간이 길다. 반면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회원국 평균이 4만 1,253달러인데, 한국은 3만 1,110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회원국에 비해 한 달 반을 더 일하고도 임금은 1만 달러 이상 적게 받는 것이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무조건 많은 양을 적은 인원으로 생산하려는 기업의 최소 인력 운용 전략에 따라 산업화가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노동자들 스스로가 연장근로를 요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 것과는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1일 8시간 노동과 1주 40~44시간 노동이라는 세계적인 시간규범이 정착하지 못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다’, ‘빨리 빨리’, ‘바쁘게 살아라’라는 시간규범의 명령을 받고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의 ‘시간은 돈이다’라는 경구는 자본주의가 진전되던 18세기의 돈으로 환산하는 시간에 대한 경제적 은유를 보여준다. 프랭클린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낭비를 질타하면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생활을 조언했다.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자신의 노동으로 하루에 10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만나질 동안 외출하거나 빈둥거리다면 비록 그가 기분전환을 하거나 빈둥거리면서 6펜스만 지출했다라도 그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는 실제로 5실링을 더 지출했거

나 날려 버린 것이다. (...) 돈은 열매를 산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돈은 돈을 낳을 수 있으며, 그 결실은 더 많은 결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돈이라는 언명에 숨어 있는 노동과 시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행위 그 자체보다 노동하는 시간이 가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돈이 된다는 믿음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수용하게 만들며, 기업가들이 시간의 압축을 통해 더 많은 이윤 창출을 도모하게 만든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사고는 속도주의가 가져온 전형적인 폐해라 할 수 있다. 효율성, 수익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은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진다. 노동시간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 경쟁상대보다 빠르게 결과물을 내도록 몰아세우고 있다. 이제 속도는 사회적인 가치를 획득하고 있으며, 절약된 시간은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얻어지는 것이다.

## 고용주의 이윤 창출 도구로 전략한 시간유연성

---

최근에 ‘시간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말 그대로 하루 8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바꿔 필요한 시간만큼만 일을 하는 시간제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시간제 노동 종사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학업이나 가정 일을 병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다면 시간유연성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주들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 부족이 시간제 노동을 부추기는 큰 요인으로, 노동자와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고용주의 새로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자신을 위한 시간유연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바쁘게 사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 하루 24시간을 장시간 노동에 할애하게 되면 휴식, 여가, 그리고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늘 시간빈곤에 시달린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곧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청년실업이 어느 때보다 심

각한 상황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백수 혹은 잉여인간이라는 명칭에는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빈둥거리면서 낭비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

이렇듯 ‘(노동)시간이 돈’이라는 시간관념이 강력해질수록 노동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시간의 의미는 평가절하되며, 우리의 삶에서의 자유시간도 사라지도록 한다. 본래 자유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에서 해방된 상태에 있는 시간으로, 여가시간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교양, 정신적 발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자유시간을 정의한 바 있으며, 자유시간의 범위와 양은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돈 버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자유시간

한때 유행했던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여행상품 광고 문구는 일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자유시간의 달콤함과 설렘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전업주부라면 가사와 양육에서 하루라도 해방되어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모처럼의 휴가를 얻어 자유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시간의 의미와 관행은 상당히 많이 변화해왔다. 산업화 이전에는 여가와 휴식을 상당히 누렸던 것 같다. 4세기경의 로마에서는 1년의 절반을 축제일로 정했고, 중세의 농부와 농노들도 낮잠과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도 종교행사와 공휴일 및 축제일을 합하면 1년의 3분의 1정도를 쉬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시계가 발명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휴가 혹은 여가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18세기 중반에는 별다른 휴일 없이 일주일에 70~80시간 노동을 했지만 20세기 초에는 하루 15시간, 주 6~7일 근무하는 것이 표준이 됐다. 노동시간은 점차 축소되어 1920년까지는 하루 12시간 노동, 주 7일 근무가 대세를 이뤘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39시간 노동하고 주말 및 휴일을 정해 쉬는 등 이전보다 자유시간이 더 증가했다(Adam, 1995: 164).

자유시간의 역사적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시간은 시장 및 고용의 시간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비노동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광고문구로 돌아가면, 일한 사람만이 여행을 떠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전업주부, 아동, 학생, 실업자, 은퇴자들에게는 자유시간이나 여가의 개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돈이므로 바쁘게 살라는 시간관념은 시간 간의 위계를 생산하면서, 자유시간을 잃게 만들고 있다. 여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Schole'는 'School'의 어원이다. 그리스인들은 여가란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를 계발하며 열정을 키우는 일로 생각했다고 한다. 여가는 오락, 여행, 사교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명상·사색·돌봄·탐구의 시간인 것이다.



# 그림자시간을 양지로

## 돌봄과 가사의 노동 가치

경제시간 혹은 화폐시간에 들어맞지 않는 시간이 있다. 대표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시간이다. 시간연구에서 독보적 업적을 남긴 사회학자 바바라 아담(Barbara Adam)은 현대사회에서 돌봄과 감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화폐로 전환할 수 없는 시간경제의 외부에 남아 있는 그림자'라고 했다. 돌봄, 사랑, 교육, 가정관리, 월경, 임신, 출산, 수유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것은 시장노동처럼 측정되거나 소비되고 할당되며 통제되는 시간은 아니다. 대부분

이런 행위에 필요한 시간은 체험되고 만들어지는 순환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Adam, 1995: 160-162).

그림자시간에 대한 이해는 그림자노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반 일리치 Ivan Illich는 ‘그림자노동은 산업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이지만 평가되지 않는 노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종류의 지불되지 않는 노동은 생활의 자립과 자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긴 노동이라고 일갈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부담하는 그림자노동의 양은 그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척도보다 유용하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림자시간은 불평등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돌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 불평등, 그리고 감정과 사랑이 자원이 되는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과의 불평등 문제를 낳는다.

돌봄을 노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돌봄이 ‘여성이면 누구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성역할’이라는 인식에 대한 페미니스트와 사회과학자들의 도전과 비판은, 양육 및 간병과 같은 돌봄을 노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2012년 콜롬비아에서 세계 최초로 무보수 가사노동을 계량화해서 국가회계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적으로도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돌봄이 노동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큰 성과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업혁명기에 제조업에서 근력을 쓰는 노동을 준거로 삼아 정의해온 노동개념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랑과 배려, 감정이 노동의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그간의 폐쇄적인 노동 관념을 넘어선다. 물론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이 과연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노동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 왜곡된 돌봄노동의 가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돌봄에 공백이 생기면서, 이를 시장노동을 통해 해결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즉 돌봄을 구매하는 것은 시간을 구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중 다수가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시장으로 나온 돌봄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현상을 돌봄 패널티(Care Penalty)라고 부른다. 즉 학력과 경력을 통제했을 때,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업에서보다 임금을 덜 받는 현상이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다. 하나는 돌봄이 여성들의 모성

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된다는 것이다. 다른 설명인 주류 경제학의 보상차이 이론에 따르면, 힘들고 성가신 일은 보상을 많이 받지만, 남을 돌보는 것 자체가 기쁨과 보람이라는 고유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노동은 보상이 적더라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돌봄노동이 물, 공기, 다리, 도로 등과 같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논의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돌봄노동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과 부합하는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돌봄의 가치절하를 수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문제는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은 사회규범이 이미 경제와 노동시장에 주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머문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과 숙련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삶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평가와 임금제도가 고착화되도록 했다. 따라서 남성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높게 평가되어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규범이 확산되는 것이다. 돌봄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들과 심리적 위안을 위한 말벗을 하는 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돌봄노동은 거

동이 불편한 노인의 목욕과 같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데 쓰인 시간으로 평가되는 실정이다.

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계시간, 즉 경제시간은 돌봄과 같이 생성적 시간, 현상과 과정이 하나로 묶여 있는 시간, 사람과 활동에 시간을 부여하는 행위, 출산과 생명의 생산을 지향하는 시간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속화되는 속도경쟁은 순환적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속도는 신속함과 민첩함을 요구하는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 돌봄과 예술 활동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 24시간사회의 도래

## 모든 시간에 일하는 사회

앞으로 경제시간에 지배되는 삶이 더 강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예측이 든다. 그 이유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시간 사회의 징후들 때문이다.

얼마 전 20대 국회에서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었다. 새벽에 수시로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업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몇 차례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지구적 신경제 체

제가 형성되면서 노동시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형적인 업무시간을 벗어나 근로시간이 무작정 확대되는 현상이 중공업은 물론 서비스·지식·정보 분야 등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지는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24시간 편의점, 새벽 전자쇼핑, 대형마트, ‘불금’을 즐길 수 있는 클럽 등을 이용해 봤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시의 애칭은 ‘잠들지 않는 도시’이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도 경쟁하듯이 잠들지 않는 도시를 자칭하면서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제 서울도 잠들지 않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24시간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레온 크라이츠먼 Leon Kreitzman의 저서 《24시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라이츠먼은 24시간 사회를 ‘시간이 연장된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24시간 사회는 누가 언제 일할지에 관한 측면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전통적인 시간의 개념에 구애되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경제적 편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21세기 도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하고, 쉬고, 놀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의 저서에 대해서 일부 비평가들은 시계의 발명 이후 굳건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구조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크라이즈먼은 더 이상 아침과 저녁, 주중과 주말 등의 시간 구분 방식은 유효하지 않으며, 밤과 낮이라는 제한을 넘어 시간의 새로운 공급원으로 기능하는 24시간 사회를 통해 탄력적이고 구애를 덜 받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견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과 토지 및 건물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들이 있다.

우선 24시간 사회가 도래한 배경을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밤의 어두움을 제거해준 전기의 발명을 빼놓을 수 없다. 인류사에서 제1의 혁명이 불의 발견이었다면, 제2의 혁명은 빛, 즉 인공조명의 발명으로 일컬어진다. 1879년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인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역시 매우 빠른 시기에 인공조명을 도입한 나라에 속하는데, 고종황제가 에디슨 전기회사와 협력하여 건청궁에 전등을 도입한 시기는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 채 10년도 되지 않은 1887년이라고 한다. 당시 향원정 연못가에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했는데 전등이 나가

는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전구가 발명된 이후 인공조명은 인류에게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둠은 더 이상 생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지만 이는 축복인 동시에 인간을 지나치게 노동하는 존재로 가둬두는 족쇄로 작용했다.

## 24시간 사회의 그늘

---

24시간 사회 확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는 제조업 부문이 감소하면서 서비스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국제경쟁력이 격화되면서 투자는 늘리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규제는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소비자들도 빠른 서비스 속도로 인한 시간 절약이 삶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밤낮의 경계를 넘는 24시간 사회는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도 24시간 사회를 추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

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정 이전까지는 귀가해야 하는 통금이 있었다. 그리고 1997년까지 심야 영업시간을 규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모두 해제되었고, 더 이상 밤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소비와 노동의 시간이 된 것이다. 24시간 사회에 대한 수요는 낮과 밤, 아침, 점심, 저녁, 주말, 주중의 구분 없이 무한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노동을 필요로 한다. 소비시간이 확장된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시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24시간 운영하는 가게와 점원들이 필요하다. 상점의 야간 운영은 야간의 치안 불안을 감내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야간작업 종사자는 약 127~129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2~14.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집계되어 있다(장하나, 2015: 158). 최근 심야 서비스직의 확대는 유연노동의 확대와 맞물려 있는데, 유연화된 노동력이 24시간 가동되는 생산영역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기본급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소득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24시간 한국 사회에서 야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김영선의 《과로사회》라는 책에서 소개된 태그팀 커플 사례는 24시간 사회의 가족의 삶을 잘 보여준다. 태그팀 커플은 한 명은 낮에 일하고, 다른 한명은 밤에 일하기 때문에 레슬링 선수처럼

럼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다. 일과 가족의 양립, 저녁이 있는 삶은 요원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24시간 사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불규칙한 수면과 순환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 잦은 사고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노동계 뿐 아니라 보건 의료분야에서도 24시간 사회는 몸의 시간과 시계시간의 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 몸은 절기마다 바뀌는 계절,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낮과 밤의 순환, 그에 따른 신체 리듬과 호르몬의 생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밤과 낮을 구분하는 24시간 리듬은 사냥으로 먹고살던 시대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생체리듬이다. 여기에 시계시간과 인공의 빛인 전기에 의해 새로운 생체리듬이 추가된 것이다.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빛공해’로 인해 별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낮에만 울던 매미는 이제 밤에도 울어 소음공해가 심해지고 있다. 24시간 사회는 이제 생태계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24시간 사회가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24시간 사회는 ‘늘 피곤한 삶’(김영선, 2013: 123)이기도 하다.

#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권리

## 타임푸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한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슬로건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영업자, 교대 근무자, 수험생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라는 냉소도 있었지만,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책 제안이었다.

시간빈곤과 시간갈등이 심화될수록 개인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의 경

제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과 개인의 생애전망이 다른 방식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고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면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규직에 취업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정년퇴직 이후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던 표준적인 생활방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남녀 모두에게 생존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남성생계부양자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모델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동 과정에서는 시간조정에 대한 욕구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시간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간압박과 시간빈곤에 시달리는 저자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대인의 일과 삶의 왜곡된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브리짓 쉘트Brigid Schulte의 저서 《타임푸어》에서는 시간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일과 사랑, 놀이를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성공적인 삶보다는 만족스런 삶,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삶을 지향하게 되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여가와 휴식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시간규범을 전환하면서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자의 권리인 휴가를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층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퇴근 이후 상

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힘들 것이다.

시간빈곤과 시간갈등의 문제는 온전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우리사회의 시간 사회성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유시간을 복원하고, 가려져 있던 그림자시간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도시의 시간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의 각 장에서 제시하는 제언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정책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 장의 정책제언의 요지들을 통해서 이 책의 구성과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 ‘서울의 24시간을 해부하다’에서는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8시간이 못되는 수면시간과 짧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고 공부하는 데 보내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피곤하지 않고 만족스런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 사용에 변화를 줄 것을 제안한다.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제안으로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을 모니터링 하는 ‘시간부서’의 도입과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시간 사용을 조사·분석하는 ‘시민시간 사용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공의 개입을 통해 개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생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장 ‘시간의 정치가 필요한 시간’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갈등의 현황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생활세계를 식민화시키는 시간불평등과 시간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시간을 정치적 이슈로 삼고 시간주권을 회복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도시의 시간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한다.

3장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의 시간갈등과 시간압박의 문제를 다뤘다면, 4장 ‘엄마의 시간은 어디에, 돌봄노동’에서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갈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시간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시간정책을 제안한다. 지역시간정책은 노동시간, 공적·사적 서비스시간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도시들은 90년대 초반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책이 공간 활용과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제언은 공간과 시간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유럽의 도시 시간정책의 배경이 일-가족-여가의 균형을 찾는데 여성들이 느끼는 시간압박 경험에서 비롯되어 착안되

었다는 점은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아닌 시민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마을과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의 거버넌스는 정책 의지만 있다면 절반의 여건은 갖춘 셈이다.

5장 ‘기적을 이룬 시간, 기쁨을 잃은 시간’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이 청소년들을 시간의 생산자가 아닌 시간의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구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곧 공부시간이고 공부시간은 곧 수업시간이며, 교육의 시간은 수업시간과 학원시간이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협소한 시간관을 확인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저자는 전환의 시간을 제안한다. 전환의 시간은 시간의 자급력을 확보하는 것,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쓰는 힘을 갖는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 삶의 미래를 감당할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시간은 자기를 발견해내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왜곡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배적 시간규범을 넘어 새로운 시간담론을 구축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6장 ‘예술가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예술과 시간의 관계를 예술작품에 대한 해설을 통해 잘 보여준다. 대중들이 예술가의 일상생활의 시간에 대

해서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출발한다. 예술가를 무대나 전시장에만 존재하는 인간이거나 창작하는 시간만을 보내는 존재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예술의 시간도 돌봄과 마찬가지로 경제시간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해준다.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예술가의 시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예술가를 위한 시간, 예술가에 대한 시간, 예술가에 의한 시간을 고려하고 배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Chapter 02

---

# 서울의 24시간을 해부하다

· 변미리 ·

---





# 도시의 시간빈곤자들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비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시간과 빠르게 스치는 공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압축적 성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도시, 인구 천만의 서울을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다. 서울 사람들의 하루라는 시간에는 푸른 하늘을 쳐다볼 한 순간, 초록빛 나뭇잎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할 단 몇 분의 시간적 여유가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일상의 모든 비용을 시간으로 계산한 <인 타임 In Time>이라는 영화가 있다. 가까운 미래사회가 배경인 영화에서는, 모든 인간이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카운트 바디 시계'에서 1년의 시간을 제공받는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커피 한 잔은 4분을 줘야 살 수 있다), 버스를 타고 식료품을 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은 시간으로 계산되고, 부여받은 시간이 소진되는 순간 즉시 사망한다. 25세가 지나는 시점부터 노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팔뚝에 새겨진 시간 카운터기가 0을 나타내는 순간 사망할 뿐이다. 영화에서는 이 모든 시간을 장악한 절대자가 존재하며, 시간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지만 가난한 자들은 노동을 통해 하루하루 24시간을 벌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영화의 탁월한 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공식을 아주 현실적으로 영상화했다는 점과 권력을 가진 이가 시간을 배분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 <인 타임>을 닮아 있다고 느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21세기 자본주의의 표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글로벌 도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은 하루 하루 시간을 통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

아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 미국인들이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물었다. 미국인이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시간부족 문제는 개인에게 실제적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인식과 시간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미 1930년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예측했던 장밋빛 전망 즉,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하루 3시간만 노동하고(이것도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나머지 시간은 아주 긴 휴가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예언이 우리 현실과 얼마나 먼 이야기였는지를 상기한다. 나아가 지난 20세기 내내 우리는 더 바빠졌고 더 많은 시간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현대인의 시간부족과 '언제나 바쁜 일상'은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되는 '다년생 현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 시간이라는 그물에 걸린 사람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생산 방식이 변했다는 것은 제조 공정이 변화한 것은 물론 이에 조응하는 노동의 조건과 노동자의 일상생활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 또한 다시 정립되었다. 톰슨

Edward Thompson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도래는 사람들이 표준화된 시간 단위에 맞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시 부족민들에게 15분이란 ‘옥수수가 살짝 덜 구워진 시간’을 의미한다. 16세기 칠레에서는 신앙고백문인 니케아 신경을 읊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시간을 기능했다. 이때의 시간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흐름’으로, 다분히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시간은 일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무어Wilbert E. Moore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일이 중심이 된 시간관념은 일과 삶의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노동하는 현대인에게 노동과 생활은 제로섬이자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맺는다. 하루 중 노동하는 만큼 내 생활은 없어지지만 생활을 위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이 중심이 된 시간 개념에선 일이 곧 생활이자 삶이다.

둘째, 일과 삶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곧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일의 완급을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시간에 맞춰 노동해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제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sup>pass</sup>이 아니라 소비되는<sup>spend</sup> 돈이다. 노동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간의 경직성은 노동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시간을 엄격

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무어는 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는 곧 가난의 원인이 된다는 시각을 사회 전반이 내면화했고, 시간을 규모 있게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인 윤리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불과 몇 십년 전의 한국 사회를 떠올려보면, 무어의 설명을 금세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한때 ‘코리언 타임’이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시간관념을 대변하던 때가 있었다. 많은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일정을 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느슨한 시간 문화가, 개발도상국의 후진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코리언타임이란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 사회가 ‘시간 윤리’라는 것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내면화시킨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찰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시간은 돈이자 금이 되었고, 한 순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행위’는 나태한 인간들이나 하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한국인들에게 독서란 자기계발서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고,

초등학생 시기는 대학 입시의 첫발을 효율적으로 내딛기 위해 늦은 밤까지 몇 군데의 학원을 돌며 공부하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9시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었으며,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라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칼퇴근’을 했다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에 시달리게 된다.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 얽매어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거세당한 채 숨 막히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 시간빈곤 Time poverty의 다차원적 의미

일할 곳과 살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키워드 중 하나는 ‘푸어’라는 단어다. ‘푸어’란 그야말로 부족함에 시달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장 먼저 등장한 개념은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하우스푸어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주택 임대비용으로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지출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렌트푸어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대

란을 앞두고 크게 회자되었다.

이후 등장한 것이 타임푸어 즉, 시간빈곤층이다. 시간빈곤층이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일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해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도 두세 개씩의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정작 공부할 시간이 없는 암담한 생활을 보내는 대학생들이나 정규직과 더 나은 일자리라는 미끼에 걸려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임금이 충분하지 않아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도 역시 시간빈곤층에 속한다. 노동시간이 과도해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간빈곤층의 문제는, 삶의 질과 노동의 질 측면에서 접근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임금이 충분하지 못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워킹푸어 문제는 노동 유연성과 노동력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OECD가 회원국들의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한국은 줄곧 상위 1~2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부터 1위 자리를 멕시코에 넘겨주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한다.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노동시간은 한국에 비해 짧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가

오랜 시간 일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전문 고소득직의 노동 시간과 블루칼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원인은 일하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선거 구호가 큰 호응을 얻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저녁은 야근하는 시간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일하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시간 부족'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일과 관련한 우리 삶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굳이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상당 부분 대신하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짐작하고 있는 바이다. 정보기술의 최첨단 공간인 한국, 그리고 수도 서울. 오히려 우리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미래 사회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잉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는지도 모른다. 물론 케인즈의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편일지, 아니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시간에 종속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게 된 시점에서, 노동과 삶을 결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기술을 획득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 행복한 시간정책의 지표, 생활시간조사

## 서구사회의 시간사용 조사

2012년 UN 총회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근처의 부탄이라는 나라를 통해 발전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적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전후 수십 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됐고,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과연 한 사회의 발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묻

고 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맞추어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간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조사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생활시간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는 미국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전국 표본 조사이며,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비시장적 활동과 관련한 돌봄이나 자원봉사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만 9,000명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자료와 연계해 분석할 수도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미국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개별 연도(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할 뿐 아니라 11년간의 자료를 모두 합한 다년도 자료도 제공한다. 또한 특정 주제에 관한 마이크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웰빙 모듈(Wellbeing Module 2010, 2012, 2013)이나 식생활과 건강 관련 모듈(Eating & Health Module 2006~2008) 등이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시간과 관련된

---

\* 미국의 생활시간조사에 관한 사이트(<http://www.bls.gov/tus/data.htm>)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 미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태생의 청소년들과 이민자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시간사용은 유사하지만, 라틴계와 아시아계 이민자 청소년들의 경우 학습시간이 많고 고용되어 일하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의 생활시간조사는 유로스타트EUROSTAT가 주관하는데, 2000년에 EU 후원으로 유럽통합 생활시간조사(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s, HETUS)를 진행했다. 이로써 유럽 전역의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져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하고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 등이 2005년 태스크 포스 구성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도 발간하여 유럽연합 국가 간의 생활시간 비교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20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제1차 생활시간조사는 1998~2002년 사이에, 제2차 조사는 2008~2012년 사이에 이뤄졌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자국민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먹고, 일하고, 자고, 여가를 누리는 모든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실제로 미국은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웰빙 모듈을 따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유럽의 생활시간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발간한 영국의 보고서는 생활시간이 친가족 정책이나 노인을 보살피는 시간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시간 자료에 근거해 사람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 한국의 시간사용 조사

---

우리나라 통계청 역시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5년 주기로 조사가 시행되어왔으며 2004년, 2009년, 201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통계청은 사람들의 하루를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필수시간은 잠, 식사 등 개인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며, 의무시간은 일, 학습, 가정관리, 돌보기 등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시간, 여가시간은 필수와 의무시간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가시간의 범위는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여가, 기타 활동 등이다.

한편 통계청이 조사 범위를 필수·의무·여가시간으로 분류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의무시간에 포함된 이동시간, 학습시간 등은 사람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필수시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고단한 서울의 삶

## 서울시민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서울시민들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모두 주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통해 24시간 쉬지 않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의 시간 문제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2014년 자료는 7월, 9월, 12월 연 3회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1만 2,000가구의 만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를 통해 확인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민

의 필수시간은 증가했고 의무시간 및 여가시간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필수시간이란 먹고 자고 외모를 관리하는 등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의무시간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 가사, 일을 하기 위한 이동과 학습시간 등을 뜻한다. 여가시간은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활동시간으로, 여기에는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미디어 이용과 문화, 스포츠, 교제, 종교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서울시민의 시간을 분석한 결과 만10세 이상 서울시민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필수시간 11시간 14분(46.8%), 의무시간 7시간 58분(33.2%), 여가시간 4시간 48분(20.0%)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필수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들은 수면 7시간 55분, 식사 및 간식 1시간 57분, 기타개인유지(개인위생, 외모관리 등) 1시간 22분 등이며, 임금을 받으면서 하는 의무시간은 3시간 9분, 가사노동 1시간 50분, 이동 1시간 51분, 학습 1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으로는 텔레비전·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시간이 2시간 15분, 교제활동 40분, 문화·스포츠 36분, 종교 활

---

\* 통계청의 필수, 의무, 여가시간의 분류가 시민들의 하루 24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분류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의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시간, 학습시간 등은 사람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수시간이라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시간은 개별 항목별로 비교 제시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동 12분, 기타 1시간 5분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시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활시간 자료 중 평균시간이란 전체 시민의 평균시간으로, 특정한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들의 시간을 모두 합한 후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은 서울시민의 평균시간으로 계산된다. 한편 행위자 평균시간은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의 평균시간을 모두 합한 다음 그 행위를 한 사람들만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민의 하루 24시간 중 유급 노동을 한 시간의 서울시민 평균은 3시간 9분인데, 행위자 평균시간은 6시간 47분이다. 서울시민 중 유급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 대부분이 하루 중 일한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수면의 경우 하루 10분 이상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동일하지만, 다른 행동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값에서 차이가 난다.

### 서울시민의 하루는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렇다면 2014년 서울시민의 생활시간사용 패턴은 10년 전과 어떻게 다를까? 단순 비교하면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시민이

여가를 보내는 데 14분 정도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주요 행동별 시간을 살펴보면 잠자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55분으로 10년 동안 8분 증가했으며, 취업자들의 출퇴근시간은 1시간 32분으로 2004년에 비해 6분 증가했다. 수입이 있는 일하는 시간은 지난 10년 사이 18분 감소했으며, 이 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율은 48.1퍼센트에서 46.4퍼센트로 감소했다. TV시청은 10년 동안 1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참여율은 2004년 80.6퍼센트에서 2014년 75.3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인터넷 행위의 행위자 참여율은 18.4퍼센트에서 23.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하루를 평균시간으로 파악하다 보면 그 수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전체 평균시간과 행위자 평균시간이라는 두 가지 값 또한 우리의 판단을 혼란케 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 혹은 악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집단을 세분화하여 어느 집단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분석할 때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 세분화된 집단의 하루 시간 사용을 살펴보자.

## 서울시민 남녀의 하루

---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보내는 하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다르지 않다. 남자와 여자 모두 7시간 54분 잠을 자고 각각 1시간 28분(남자)과 1시간 25분(여자) 밥을 먹는다. 일하는 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길게 남자는 3시간 58분, 여자는 2시간 23분 일한다. 가사노동 시간에서 남녀의 차이가 가장 많은데 남자는 가사노동에 29분만을 할애하지만, 여자는 하루 2시간 20분 가사노동을 한다. 지난 10년간 음식준비의 행위자 참여율을 보면 남자는 11.9퍼센트에서 20.9퍼센트로, 여자는 69.7퍼센트에서 71.3퍼센트로 변화했는데, 이러한 변화율은 서울의 남녀가 가사 관련 행위에서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며 성역할은 여전히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서울시민 세대·계층별 하루의 시간구성

---

서울시민 중 40대가 가장 적게 잠을 자고(평균시간 7시간 39분) 가장 많이 일한다. 40대의 일하는 시간은 평균시간 4시간 22분이며, 하루 10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 행위자평균시간을 계산하

면 7시간 2분이 된다. 10대는 학습시간이 가장 많고 20대는 여가·교제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길게 나타나며 30대와 40대가 일하는 시간이 길다. 모든 세대의 밥 먹는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 내외로 서구 사회의 식사시간에 비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모든 연령층들은 일과 학습은 많이 하고 밥도 빨리 먹고 이동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하루를 살고 있다.

서울시민의 지위계층별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우리는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이들의 시간사용을 재구성했다. 높은 소득계층인 9~10분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인 1~2분위 계층에 비해 잠은 적게 자고 일은 많이 하며 이동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많다. 데이터만 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집단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여유롭지도 균형적이지도 않다.

이들 소득계층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수면시간이 짧고, 중간소득 계층은 밥 먹는 시간이 짧고, 저소득층은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은 중간계층에 비해 15분 적게 자고 일은 10분 더 하며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수면시간이 28분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의 수면시간이 가장 짧고 블루칼라는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길며 식사시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의 성격에 따라 시간구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혼과 일, 여성들의 하루

---

서울이란 장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30세가 넘으며, 첫 출산 시기는 34세이다. 미혼과 만혼이 많아지고 있는 서울에서 여성들의 하루는 결혼 유무에 따라, 취업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존재적 특성에 의해 동일한 양상을 띠는 시간도 있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하루 시간 구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사노동 시간이다. 미혼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33분에 불과하나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무려 1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이혼 여성이나 사별 여성 또한 가사노동 시간이 비슷하거나 더 많다.

### 일하는 여성들 사이의 세대별 시간 구성

---

먼저 서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들의 직업별 하루 시간 구성을 살펴보자. 30대에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보육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리전문직 여성과 블루칼라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화이트칼라 여성에 비해 높지만, 가사노동은 블루칼라 여성이 2시간 25분, 화이트칼라 2시간 12분, 관리전문직이 2시간 5분으로 직업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대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을 포함한 돌보기 시간도 화이트칼라가 2시간 8분, 블루칼라 1시간 33분, 관리전문직 1시간 18분 등으로, 30대에 일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양육과 가사노동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서, 30대 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노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다. 30대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서울 청년의 하루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그야말로 기댈 곳 하나 없는 풍랑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소득 빈곤계층으로서의 청년계층이 시간 빈곤층이 되고 시간빈곤층에서 다시 저소득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목격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 혹은 노동시장에 가까스로 들어가긴 했으나 직업안정성이 없는 임시근로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찾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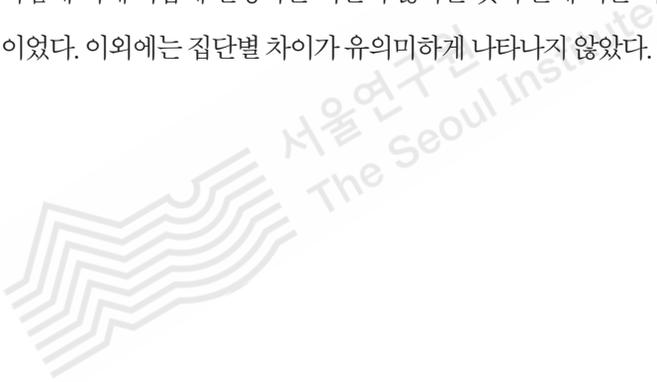
못한 청년들, 이들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먼저 일하는 청년들(25세~34세)의 고용 지위에 따른 시간사용을 비교했다. 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이 임시 및 일용직 청년들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 많고(행위자 시간 기준) 수면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학습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불안한 일자리에서 끊임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남자들은 7시간 48분 수면하고 여가나 교제에 6시간 28분을 보내고 있으며 식사하는 데 1시간 1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은 잠자는 시간이 8시간 32분으로 서울시민 평균 수면 시간보다 많았으며 여가·교제에 4시간 43분을 쓰고 가사노동에 1시간 49분(행위자 평균시간은 2시간 1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가·교제도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회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 청년들의 고단한 하루를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하루를 분석해봤다. 데이터 분석 전에 기대했던 시간 구성의 다양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서울시민은 8시간 좀 못 되는 잠을 자고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임금이

주어지는 노동을 한다. 또한 2시간 가까이 가사노동을 하고 그와 비슷한 시간을 이동하는 데 보내며 텔레비전을 보고 교제를 하는 등의 시간으로 2시간 15분 정도를 할애한다. 이러한 하루 시간 사용은 서울시민 전체에서 비슷하게 발견된다. 우리 모두는 대도시의 강제되고 구조화된 시간 규정에 맞춰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다. 세분화된 집단별 시간사용을 분석해보면 비교적 유의미한 차이들이 드러나는데, 성역할에 따른 가사노동과 보살핌 시간이 남녀 간 차이를 보였고 직업이 없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학습에 할당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띄는 지점이었다. 이외에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시간정책

## 피곤함의 비밀

서울시민들의 64.6퍼센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10명 중 6~7명이 언제나 시간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니,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다(남성 67.6%, 여성 61.7%).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민 10명 중에 8~9명인 85.3퍼센트가 자신의 하루를 ‘피곤한 하루’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언제나 바쁜 사람들, 그

래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그 부족한 시간 덕분에 언제나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는 과연 이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시간부족을 느끼는 집단과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하루 24시간을 분석해보았다. 하루가 여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잠을 자고, 일하는 시간도 시간 부족을 느끼는 집단에 비해 1시간 30분 정도 짧고(행위자 시간 기준), 이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여가나 교제로 보내는 시간이 시간 부족을 느끼는 집단에 비해 2시간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루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적고 여가·교제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하루가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시간 구성에도 차이가 컸다. 8시간 가까운 수면, 1시간 31분의 식사시간, 여가·교제에 4시간 정도를 보내고, 일하는 시간은 7시간이 되지 않을 것(행위자 시간 기준).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은 일을 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짧고, 수면과 여가, 학습시간이 긴 데 있었다.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하루의 재구성

---

서울시민들은 일과 학습에 쪼들여 살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동하는 시간이 길고, 30대 연령층의 경우 일하지 않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시간사용 패턴을 보였다.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이든 아니든 가족 돌보기 등 가사 관련 업무를 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식사시간은 짧고, 여가·교제의 시간의 대부분은 TV 보기 등으로 채워지는 하루를 보낸다.

데이터에 근거해 '서울시민들이 피곤하지 않는 하루'를 제안해보자. 우리는 '난 오늘이 피곤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들의 시간사용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시간을 재구성해보았다. 8시간의 수면,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는 이동 시간, 30분 늘어난 식사시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 시간배분을 위해 1시간 줄어든 여성들의 가사 관련 활동시간, 동시에 늘어난 남성들의 가사 관련 행위 참여율, 무료한 시간이 많은 고령자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지원, 직장인 남성들의 하루 시간에서 일과 가정, 교제 등 시간사용의 균형 잡기.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서울시민의 하루 시간사용의 변화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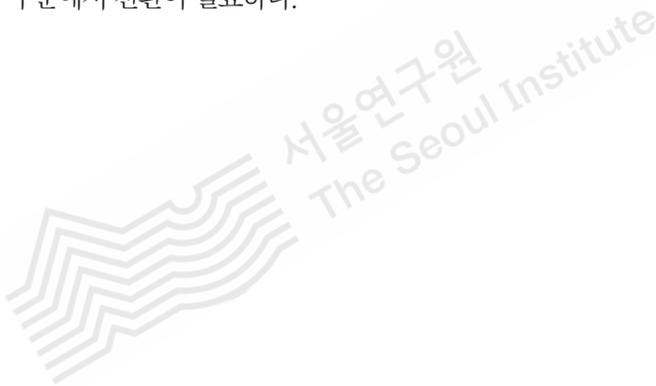
OECD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Initiative)' 지표체계를 근거로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건강과 주관적 만족감 이외에 일과 삶의 균형 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역시 자신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건강, 소득,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만족감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24시간이라는 하루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성장만이 사회의 선한 가치로 인지되던 사고 패턴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인 요소가 한 단위 증가했음에도 삶의 만족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사회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공영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시간부서<sup>Time Office</sup>'다. 몇 십여 년 전 유럽에서는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시간부서의 도입을 시도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민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세밀하게 파악해보자. 정기적으

로 시민들의 시간사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민 시간사용 보고서’를 발간하자. 시민들의 시간사용은 노동조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 시설, 여가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공공 문화자원의 확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민들이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시민의 시간사용은 아주 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공의 개입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오늘 서울시민이 안고 있는 시간의 문제는 많은 부문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Chapter 03

---

# 시간의 정치가 필요한 시간

· 김종진 ·

---





# 250원에 빼앗긴 서울의잠

## 공간 중심의 도시 정책이 만든 문제

서울의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지하철을 들여다보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대 ‘딱딱’ 들어찬 승객들로 ‘지옥철’이라 불린다. 2015년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2단계 구간이 확대되면서 생긴 결과다. 서울시는 애초 예상과 달리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자가 증가하자 9호선 분산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차량 증편 투입, 급행순환버스 운행, 조조할

인 등을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조조할인제다.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새벽 첫차부터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20~30퍼센트의 요금 할인이다.

약 250원 남짓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새벽 첫차를 타는 사람들, 전날의 피곤함이 가시기도 전에 아침잠을 설치며 6시 30분이 라는 이른 시간부터 지하철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하는 청소원, 전날 근무자와 교대를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이다. 몇 해 전 누군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어야 했던 것이 현실인데, 서울시민의 잠까지 앗아간 지하철 개선대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 도시가 공간 중심으로 계획되면 시민과 직장인들의 삶의 질은 이렇게 낮아진다.

애초 민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맡기고 시민들의 주거지역과 업무지구(근무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선을 설계한 것이 문제였다. 해당 노선을 대체할 다른 교통노선이 부재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고, 민자 회사가 도입한 탓에 9호선의 열차 차량은 짧고, 한 객차당 승객 수용 인원도 낮다. 공공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서울시는 “힘들더라도 평소보다 조금씩만 일찍 집을 나서주시고, 시가 마

런한 출근 급행버스를 이용하고, 유연근무제 등에 동참해주신다면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9호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하철 혼잡을 막기 위한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 자본과기업이 잠식한 시간

## 24시간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를 팔고 있는 도시

서울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서울의 시간, 도시의 시간을 상상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거리에는 다양한 매장들이 즐비하다.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제빵제과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뷰티·헬스 매장과 같은 드럭 스토어<sup>drugstore</sup>도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게 앞에 붙여 놓은 영업시간을 보면 폐점시간이 24시다. 심지어 대형서점의 마감시간도 저녁 10시 30분으로 안내하

고 있다.

반나절만 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서울은 24시간 사회임을 알 수 있다. 편의점만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까페베네, 탐앤탐스)과 패스트푸드 매장(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도 24시간 환하게 불을 켜고 있다.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1년 365일 사무 업무가 가능한 ‘페덱스 키크코스FedEx kinko’s’, 도넛으로 유명한 ‘크리스피 크림Krispy Kreme’ 매장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다. 우리 주위에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이렇게 많다. 일부 편의점 앞엔 안심마크가 있다. 밤길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편의점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여성을 배려한 조치라고 한다.

서울의 시간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맥도날드는 113개 매장 중 99개, 버거킹은 84개 중 32개, 롯데리아는 207개 중 92개 매장이 1년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매장이다. 롯데리아 24시간 매장 91곳 중 94.5퍼센트(86개)가 홈서비스home service, 즉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시민의 편리성을 앞세운 재벌 기업의 24시간 영업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1년 365일 운영되는 곳 중 유독 롯데그룹이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맺은 브랜드가 많다. 편의점(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커피 전문점(엔제리너스), 외식(T.G.I.프라이데이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제빵제과(브랑제리, 나무루팜), 멀티플렉스

극장(롯데시네마), 호텔(롯데호텔),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마트(하이마트), 의류점(유니클로, 자라)까지. 매장의 영업시간이 연장되거나 24시간 운영되면, 고객의 시간과 노동자의 시간도 바뀐다. 이제 서울의 시간은 시민에 의한 시간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에 의한 시간이다.

롯데 쇼핑몰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 영화관은 8회까지 상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새벽 4시다. 마지막 상영시간이 새벽 4시이니 영화를 보고 나오는 시간은 아침 6시인 것이다. 1회와 8회 영화 상영시간 사이에 딱 2시간이 비어 있다. 극장이 24시간 상영하는 사이 그 옆 커피 전문점도 24시간 영업한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아침 8시에 누가 영화를 보냐는 것이다. 배급사와 상영관을 찾지 못한 다양한 저예산 영화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조조할인을 찾는 학생과 미취업자들이다.

2015년 12월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서울지역 새벽 시간 아르바이트(알바)를 검색했더니 174개 매장이 모니터 화면에 뜬다. 서울 시내에서 당장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최소 100여 개 이상이라는 뜻이다.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그리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심야 시간대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청년이다. 최저임금보다 0.5배 많은 법정 야간수당

과 홈서비스 배달 수당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소위 3D 알바일수록 나이가 어리거나 변변한 기술이 없는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심야노동을 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청년들이면, 건강문제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심지어 눈비가 오는 날에도 30분 이내에 배달을 해야 하니, 속도 경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당장 터질 문제가 아니니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연평균 10.6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음식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말이다.\*

### 정상영업과 임시영업의 차이

서울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설날과 추석에도 상점에는 정상영업 깃발이 붙어 있다. 명절에 영업한다면, 반나절이라도 그건 임시영업 아니었던가. 기업과 고객, 시민의 눈에 보이는 언어와 사회적 시선<sup>Social Lens</sup>은 이렇게 다르다. 자본가 기업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보도자료(2015.8.4)에 따르면 청소년, 청년 음식 배달 관련 산재 승인된 교통사고 부상자(사망자)는 2010년 588명(사망 11명), 2011년 609명(사망 13명), 2012년 491명(사망 11명), 2013년 430명(사망 7명), 2014년 436명(사망 11명) 정도로 확인됨. 이는 지난 5년간 최고 연인원 430명(월 35.8명)에서 최대 609명(57.5명)으로, 평균 510.8명(월 42.5명) 정도의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가 확인된다.

이 시민과 고객에게 이곳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어떨까. 2015년 9월 롯데백화점 본점의 영업시간을 보면 한 달의 3분의 2 이상을 30분 연장영업했다. 대형마트 영업일 시간도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하루 영업시간은 백화점보다 긴 오전 9시에서 밤 12시까지다.

그나마 주 1회였던 대형유통업체 정기휴점은 IMF 사태 이후 월 1~2회로 축소되었고, 그것도 일요일이 아닌 주중으로 옮겨지고 있다. 설과 추석에도 '정상영업'이라는 팻말을 내거니 1년 365일 영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지어 대형 쇼핑몰 '두타'는 "야근하는 당신을 위해 새벽까지 연장 영업한다"는 광고 문구까지 내걸기도 했다. 사실 2015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축소, 소비자 권리를 내세우며 헌법소원까지 고려했던 재벌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한몫 거든다는 것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은행 같은 금융 창구 업무를 4시에서 6시 마감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은행 창구가 4시에 마감한다고 해서 은행 직원들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제를 맞추고 정산까지 하려면 8시는 되어야 한다. 게다가 2015년부터 우체국 토요

우편물 배송서비스를 부활했다.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금융업무나 쇼핑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로서의 나, '시민'으로서의 나

---

흥미로운 것은 이상헌의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책에 소개된 스위스 사례다. 스위스는 법으로 '필수적 서비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야간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2009년 스위스 연방법원은 한 야간 주유소가 24시간 매점을 운영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매점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커피는 생사를 가르는 '필수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이지만, 샌드위치를 안 먹었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상점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했다. 이 투표에는 성탄절 전후 일요일에도 영업을 허가하는 조항이 보태졌다. 시민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쇼핑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찬성 43.8퍼센트, 반대 56.2퍼센트였다. 유통업 종사자가 10퍼센트 남짓인 스위스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립한다면 산술적으로는 영업시간 연장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말이다. 사실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법률이나 조례로 일요일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일요일 영업을 하더라도 폐점시간이 평일보다 짧고, 주중 1~2시간 연장영업을 허용한다. 서비스 노동자들도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쉴 권리가 있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 시민의 편리를 위해 '시민의 날'을 지정하여 연장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일요일 상점이 문 닫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도시의 시간을 시민들이 합의했을 때와 기업이 결정했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기업들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한다. 그들의 하소연과 불편부당함에는 이유가 있고 때론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5일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일까. 직장인의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퇴근시간이 5시라면 어떨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TV,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나 케이블 방송과 같은 전자통신 서비스들이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나면 하루를 기다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부터 판매직과 설치수리 서비스 기사까지 서비스 노동자들은 주말과 공휴일이 따로 없다. 24시간 사회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24시간 일하고, 소비하고, 움직이는 사회. '더 많은 시간

으로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우리는 소비자로서 '나<sub>Me</sub>'인가, 시민으로서 '나<sub>Us</sub>'인가.



# 일하며 병들어가는 사람들

## 좋은 일자리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일 저녁만 되면 다음 날 출근 걱정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 속에서, 출근할 때마다 아파하는 직장인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급하게 햄버거를 먹다가 넥타이에 소스를 흘리는 사무직.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인데도 퇴근하지 못하는 직장맘 여성. 과장님이 아직도 퇴근하지 않아 컴퓨터를 끄지 못하고 모니

터 앞에 앉아 있는 말단 직원들. 이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왜 우리는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3교대 근무제의 대표적인 직업인 간호사와 전일제 통상 근무 형태인 판매직의 삶을 들여다보자.

병원 간호사는 3교대(주간, 저녁, 밤) 근무로 밤과 낮이 수시로 바뀐다. 간호사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대형병원에서 처음으로 밤에 근무한 어느 간호사는 이 일을 계속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처음 밤 근무할 때 눈물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했죠! 몇 달간은 우울증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병원 생활 3년이 되니 몸도 망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요. 쉬는 날이면, 자기계발보다 잠자는 것에 만족하죠. 오프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한 달에도 수차례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에 출퇴근 거리가 먼 곳엔 살 수도 없다. 병원 간호사 평균 출근 거리는 31분 남짓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머무는 시간은 10시간인데, 그 사이 밥 먹는 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30여분에 불과하다. 결국 간호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이 넘는다. 반면 집에 돌아가 잠을 자는 시간은 6시간 20분밖에 안 된다.

유통 서비스 판매직은 전일제 통상근무이나 근무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시민들은 백화점이 10시 30분에 개장하니 직원들은 10시쯤 출근할 줄 알고 있겠지만 보통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해서 저녁 9시는 되어야 퇴근한다. 출근하자마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개점 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매장 청소와 정리, 진열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밥 먹는 시간이나 티타임 1시간 30분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한다. 가끔 제품 재고 조사나 신제품이 입고될 때는 저녁 10시나 11시, 어쩔 때는 12시에 퇴근한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2시간에 가깝고, 잠자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종인 만큼 한두 번씩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죠.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8번 쉬더라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무기력함을 느껴요.

취업자 2,285시간, 임금노동자 2,240시간.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일본에서도 고도성장기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 사회

는 ‘과로사’ 문제를 산업안전과 건강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했다. 반면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일하는 시간처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도 없는데 말이다. 일이 삶을 압도해버린 오늘날 불안정 노동, 장시간 노동, 과로와 소진,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이 비인간화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조건을 왜 견디고 있는 것일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직장인 1만 5,000명이 응답한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높은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노동시간 길이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중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꼽도록 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라는 응답이 48퍼센트나 나왔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10명 중 4명은 임금이 줄더라도 직장을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 수 있다.

## 은폐된 노동시간과 숨겨진 노동시간

노동시간 통계가 실제 노동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노동시간 조사 방식은 5인 이상 사업체 실태조사에 근거한다. 그런데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포함된 노동시간(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개별 당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 인사총무 담당자가 급여지급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과소측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 유통, 음식·숙박, 보건·복지 등 다양한 직종에서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근로시간이 통계에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법이 규정하는 휴일과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쉬는 대신 수당을 받은 것은 노동시간에 측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장에서 점심시간으로 지칭되는 하루 60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간 노동시간 단축 논쟁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휴게시간과 휴가다. 우리나라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 약정휴가, 연차 유급휴가로 나눌 수 있다. 법정휴가는 주5일 근무제, 대체휴일제 등이 시행되어 미흡한 수준으로나마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휴가제도와 휴게시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1일 근로시간 중 ‘숨겨진 노동시간’(휴계시간)과 ‘은폐된 노동시간’(연차휴가)은 실노동시간을 측정할 때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60·61·62조)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휴가는 25일 한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다. 2014년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평균 8일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사용 연차(소진율 57.8%)도 통계에 누락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하루 1시간의 휴계시간도 30분 미만 사용이 절반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으로 포착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다.

직장인들은 통상 급여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을 실노동시간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보면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 머무는 시간 즉, 종속된 혹은 구속된 노동시간 개념으로 접근하면 숨겨진 노동시간과 은폐된 노동시간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

---

\*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유급휴가 적용은 10명 중 6명 정도(60.6%)에 불과하고, 그나마 거의 대부분 정규직(89.2%)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비정규직은 10명 가운데 2.5명 정도(24.8%)에 불과한 실정이다.

면 업무준비를 위해 다소 일찍 출근한 직장인의 하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자. 직장인은 보통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7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의 하루 실노동시간은 몇 시간인가? 일반적으로 9시부터 근무한다고 하면 통상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에 근거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정말 9시간인가? 9.5시간은 아니었던가? 법정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유급 인정 산업·업종·사업장)’과 ‘인정하지 않는 것(미유급 산업·업종·사업장)’의 차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 제34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취약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시간배분도 문제다. 그 나라의 법은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산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논쟁과 논의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정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

### 하루가 28시간이라면?

---

우리의 노동시간에는 틈이 있다. 직장인들의 구속된 노동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생활 세계, 다시 말하면 하루 24시간

의 흐름과 리듬을 봐야 한다. 특히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 머무는 시간인 구속된 노동시간의 길이가, 전체 생활 세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병원 간호사의 하루 노동생활 세계를 보면 하루 출퇴근 시간으로 1시간 4분, 실근무시간으로 9시간 12분, 식사시간으로 21분, 휴게시간으로 15분, 퇴근 후 개인 시간으로 5시간, 잠자는 데 준비하는 시간 38분과 수면시간 6시간 18분이 필요하다.

만약 간호사가 부족한 잠을 더 자기 위해 혹은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면 하루 24시간 중 어디에서 빼와야 할까. 출퇴근 시간에서 뺄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전세값이 높은 서울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결국 유럽처럼 1일 6시간 혹은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의 직장인들에게 부족한 시간을 돌려준다면 어떻게 활용할까.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사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직 조방진(50대, 가명) 씨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15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이제 저를 위해 투자하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라

고 대답했다. 서울메트로 역사 청소를 하는 박수진(50대, 가명) 씨는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 주위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과 보내고도 싶다”고 한다. 50대와 60대 중고령층 이상의 노동자들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2030세대는 어떨까. 과연 이들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답할 것인지 궁금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배지은(30대, 가명) 씨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 준비를 생각했거든요”라고 대답했고, 서울의료원 간호사 윤예린(20대, 가명) 씨는 “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죠. 하루 종일 푹 쉬고 싶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다음날 일하기도 쉽지 않거든요”라고 말하고 있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이 직장에 종속된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주어진 시간 역시 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잠)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부가된 시간의 사용이나 조정도 일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삶과 휴식 문제를 해결하기 요원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서울의료원 간호사도, 다산콜센터 상담사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대부분이 “선생님의 하루 스케줄을 꼭 적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자신

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은 4시간이 채 안 된다. 서울시  
민이, 서울의 직장인과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아니라면  
그 어떤 정책도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 폭스바겐이 보여준 것

## 시간빈곤과 시간갈등의 차이점

최근 '시간빈곤'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일상의 시간부족 문제가 관심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2014)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40퍼센트 가량이 시간빈곤 상태이며, 수치로 환산하면 약 930만여 명이나 해당된다고 한다. '시간빈곤'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주일 가운데 개인 관리와 가사·보육 같은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훨씬 적

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빈곤 노동자의 95퍼센트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 내에서 두 명이 일하는 맞벌이 가정은 시간부족률이 더욱 높았다.

하지만 시간빈곤은 개인에게 그 해결 방식을 맡긴 ‘소극적 개념’이며, 오히려 시간부족 문제를 시간갈등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좀 더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 2015년 8월, 서울 시민들에게 현재 시간부족 문제와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서울시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일상생활에서 시간갈등을 겪고 있고, 현재 일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대답을 했다. 서울시민은 어떤 시간이 부족할까? 휴식과 잠자는 시간(33.1%)과 여가시간(24%)이 가장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은 취미와 여가를 가질 시간(33.8%)과 휴식·수면시간(19.3%)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중 ‘시간부족 경험대’가 출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42.2%)’,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24%)’에 가장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부족 이유도 일(직업) 관련 활동(44.5%)이나

학업 및 자기계발(19.5%)이었다. 서울시민의 시간부족과 갈등은 직업과 일로부터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민의 시간을 되찾기 위한 논의는 일로부터 구속된 노동시간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중심적으로 설계된 노동시간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2015년 서울 직장인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4시간 정도였고,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겨 1주일에 52시간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만 66만 명(15.3%) 정도 된다. 서울의 직장인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 이외에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인데, 쉽사리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을 법정 노동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서울지역에서 최소 13만 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오래된 숙제 ‘노동시간 단축’

---

그간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도 인력 충원과 비용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쟁점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일 8시간 노동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편적인 노동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오래된 요구MAY DAY였다.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첫 번째 협약(1919년)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이었고, 20년 후인 1939년(47호 협약)에는 1주 40시간 근로제를 결의했으며, 1962년(116호 권고) 1주 40시간 근로제를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주 35시간을 1993년 노동시간 지침The Working Time Directive으로 채택했고, 프랑스는 1998년 주 35시간 노동법The Aubry Laws 제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했다.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 나라들이나 독일도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각각 37시간과 35시간이다. 우리의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은 대한민국 노동의 잣대로 볼 때 정상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OECD, EU 등에서도 ‘괜찮은 일자리’ 지표로 제시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노동시간’을 주요 의제로 선정(2007년)한 바 있고, 일과

---

\* 8시간 노동제는 제1인터내셔널(1866년) 때부터 노동계급의 요구였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였다. 이는 이후 미국 8시간 노동시간 요구와 맞물린(헤이마켓 사건, 1886년 5월 1일 미국 8시간 요구 총파업, 1890년) 역사적인 흐름이었고, 훗날 노동절로 자리 잡는 계기였다.

삶의 균형, 산업안전과 보건과 같은 포괄적 건강(Well-Being)의 관점에서도 중요 의제로 제시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자유, 안전,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양질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유급휴가를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최소 2주는 연속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최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노동자에 4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급연차는 최소 20일 이상이다. 이런 노동시간정책들이 우리에게만 들린다. 한 달의 휴가를 보장하는 독일, 하루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되는 프랑스, 하루 근무시간이 35시간에 불과한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출산휴가 정책에 있어서도 “아이는 국가가 당신과 함께 키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년간 보장하고 있다. 이들 나라 모두 시민들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시간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할 뿐이다. 시간의 정치는 설득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국가 정책은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지방정부도 ‘공간’으로서의 지역과 거점 중심의 정책(공급)을 내놓는 데 급급해, ‘시간’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은 미약했다. 그동안 공간의 정치는 많았어도 시간의 정치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무자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을 진행할 때도, 건물이나 공원의 위치 또는 내부 설계 등 공간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졌으나 직장인들의 휴게시간과 같은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인간의 삶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간의 정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줄기를 놓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미 유럽의 몇몇 진보적 지자체는 직장인들에게 시간은 무엇이고, 노동시간은 어떠한 의미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재구성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왔다. 현재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노동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한 것이다. 바로 지역시간정책 ‘시간의 정치Zeitpolitik’가 그것이다. 최근 서점가에서는 《타임푸어Time Poor》라는 책이 주목받았다. 시간빈곤 문제는 “개인의 기초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한 시간

부족, 그 시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기근속 휴가나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한 기업 정책이나 노사 간 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의 정치는 다르다. 도시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시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혹은 산업 차원의 큰 틀에서 시간 문제를 해결한다. 시간부족을 둘러싼 시간빈곤과 시간의 정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유럽의 지역시간정책은 진보적 지자체인 이탈리아의 보첸, 독일 브레멘, 프랑스 파리 등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도시는 모두 시간갈등을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하여 지방정부에서부터 시간의 정치가 발전한 케이스다. 1980년대 중반은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연화가 일어난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탈리아 보첸에서 특히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촉발되었다. 당시 여성운동 단체들은 노동조합과 지자체 남녀평등위원 및 지식인들과 손을 잡고, 특히 직장여성들이 겪는 시간부족과 갈등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했다. 직장과 일상생활의 시간을 조정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탈리아의 시장들은 상점 영업시간을 비롯한 지역의 노동시간을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후 10년간 실험적 시기를 거친 이후, 2000년 지자체의 포괄적인 시간의 정치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고 초기의 위로부터의 결정 방식<sup>Top-Down</sup>이 아래로부터의 결정 방식<sup>Bottom-Up</sup>으로 보완되었다. 관련법은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정의하고, 또한 시간의 정치를 위한 여러 도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에서는 지자체의 시간의 정치가 포괄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고, 시간구조의 조화와 함께 공적·사적 서비스 제공의 개선 그리고 도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들은 시간관리실<sup>Zeitbüro</sup>을 설치하고 ‘시간의 질서와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시간관리실’은 지자체 행정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상담 및 조정기관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간정책 설계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시간의 질서와 계획’은 시간의 조화와 조정을 위한 법적 도구다. 시간의 질서를 수립하고 계획할 때 특히 교통, 환경,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시장의 제안으로 시의회에서 승인되며, 지자체 행정에서 실천된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시간이 일상의 시간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상점의 영업시간, 병원의 진료시간 또는 관공서·은행 등의 창구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

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직장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관점에서도 논의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시간이 주로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었다면, 점차 클라이언트들의 시간 논리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사회적 시간구조가 복잡해져 시간의 제공자들(관공서, 학교, 병원, 은행, 기업, 복합멀티쇼핑몰 등)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시간의 구조에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시간의 정치는 시간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발생하는 상이한 욕구를 타협하거나 조절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탈규제와 유연화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부조화 문제를 일방적으로 시장의 힘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시간의 정치는 전 유럽으로 전파됐다. 1990년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파리, 브레멘, 하나우, 뮌헨, 함부르크 등)에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실험을 통해 시간의 정치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한 대표적 모델인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역시 볼크스부르크라는 지자체의 시간의 정치 사업 중 하나였다. 지자체가 폭스바겐 자동차 주식의 약 25퍼센트를 가지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제위기로 지역의 실업문제가 발생하자 폭스바겐의 노동시간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줄이면서 시간의 정치가 세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휴가부터 도서관 운영, 여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우리 아버지가 36시간 일하다가 (일하는 시간이) 10시간 줄어들었는데, 아버지가 문화 활동은 안 하고 텔레비전만 봐서 할 게 없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창조적 여가활동이나 학습 등 도움을 줄 여가 상담소를 만들기까지 했다. 도시의 시간을 시민 스스로 되찾은 ‘시간의 정치’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시민들의 시간 되찾기 실험

## 관람은 노동시간 만들기

전 세계적으로 단순하고 집합적으로 구조화되었던 제조업 육체노동 즉, 생산직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포디즘(Fordism)’적 시간의 질서는 무너져가고 있다. 노동시간은 유연해지고 일상생활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과 아이의 등하교, 부양가족 돌봄, 은행 또는 관공서 업무, 장보기, 개인적 여가활동 등 일상에서 이행해야 할 일들 간의 시간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직과 사무

직과 같은 ‘무게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노동과 시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간의 정치’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변화로 인한 시간갈등이 아직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력 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논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간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는 상점과 관공서 및 여러 서비스 기관이 늦게까지 문을 열어, 직장 근무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은행 등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데 시간갈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직장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시간의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사회화 및 고령사회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라는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노동시간 단축이 국가발전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괜찮은 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을 제시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된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촉진하는 건강한 노동시간을 만들 것, 여성을 비롯한 직장을 가진

이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노동시간을 만들 것,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노동시간을 만들 것을 요구한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더는 시간의 정치를 미룰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직장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시간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다양한 시간정책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의 불평등은 전체 취업자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소영세사업장, 서비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은 불평등한 시간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맺은 협약 모두에서 노동시간의 권리와 향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 인간중심적 시간문화

---

우리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제안해야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시간 주권 요구다. 서울시민에 의한 시간조례를 만들고, 도시의 시간정책을 만들고, 시간정책을 집행하는 ‘시간관리센터’를 운영하

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립대와 같은 시립 교육기관에 시간의 정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생과 시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노동 시간을 누리도록 시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일요일이면 상점이 문 닫는 도시, 필수 서비스가 아니라면 심야영업을 하지 못하는 도시를 상상해볼 수는 없을까. 우리는 서울의 아이들에게도 아침 1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0교시를 없애는 운동은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다. 맞벌이 여성에게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도 도시의 시간, 직장인의 근무시간과 연계해야 그 효과성이 높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괜찮은 노동'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 하루 6시간 혹은 7시간 일하는 도시, 일주일 4일 노동제가 가능한 도시로 바꾸자는 제안은 어떤가. 반사회적 노동인 심야노동과 장시간노동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오래된 숙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간 노동정책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자(정치)들과 보수적 법학자들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제의 노동시간을 기본적인 표준과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의하고 확립해온 것 자체가 문제다. 스웨덴에서는 2014년부터 1일 6시간 근무 실험이 진보적 지자체 고텐버그(Gothenburg)에서 시작되고 있으

며, 공공부문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어 실험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여가생활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시간의 재구조화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는 것, 비정규직이 절반가량인 우리 현실에서 입사 첫해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여름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도 23조 일할 권리 다음에 24조 쉼 권리를 명시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반가운 소식은 2016년 서울시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또 서울의 시간정책은 어떤 것일까? 더 나은 삶을 위해, 즐거운 일터를 위해 하나하나 더 인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서울의 시민이 하루 6시간 일하는 직장, 일주일에 4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

\* 스웨덴 고덴버그토타 서비스센터 14년 전부터 1일 6시간 근로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률이 감소로 인한 숙련향상 등으로 매출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테보리 지역의 Hisingen 요양기관(60명)에서는 기존 8시간에서 6시간 근무로 새로 14명을 더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The Local, 2014년 8월 22일자, ‘Swedish city all set for six-hour workday trial’ The Local, 2015년 2월 3일자, ‘Six hour work day gets off to ‘great’ start’.

# 엄마의 시간은 어디에, 돌봄노동

· 엄규숙 ·

---





# 여성에게 너무 과밀한 시간

## 시계적 시간의 흐름

체코 프라하의 구시가 광장에는 구시청사와 시계탑이 있다. 시계탑은 1410년에 제작된 것으로 매 시각 정각이 되면 인형들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시계탑은 비단 프라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영국 런던의 빅 벤<sup>Big Ben</sup>, 독일 뮌헨의 신시청사와 시계탑, 스위스 베른의 크람거리에 치트글로게<sup>Zytglogge</sup> 등 화려함과 독특함에서는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광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시계탑이다. 시계탑은 근대

적 시간의 상징이다.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문자판이 부착된 기계는 높은 탑에 설치되어 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서 시계추가 균등하게 움직이면서 시각적으로 시간을 알려줄 뿐 아니라 문자판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종소리로 시간을 들려준다. 도시의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시계소리에 맞춰 활동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인간은 근대 이전에는 닭이 우는 소리 즉,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을 했다면 근대 이후부터는 자연의 리듬이 아닌 ‘시계’에 맞춰 살게 된 것이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시간 패턴이 달라진 것도 ‘시계적 시간’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시간 패턴이 달라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모든 게 돈으로 환원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독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식주, 출산과 육아, 환자와 노인의 돌봄은 공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가부장제다. 근대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식탁이 풍요로운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 굽는 이가 자비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설파했다. 이에 대해 낸시 폴브레 Nancy Folbre라는 여성학자는 “식탁을 차렸던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 굽는 이가 아니라 보통의 아내나 어머니들”이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가슴’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가

는 돌봄노동을 가족의 영역에 가두어두고 ‘모성’ 또는 ‘사랑의 노동’이란 미명하에 자연스럽게 공짜로 이용해왔다(문경란, 2016).

시간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의 돌봄 활동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최근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느 한 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부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고 돌봄, 살림, 부양 등을 공공 부문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여성이 돌봄 활동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 세 살 미만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위생 시설을 갖춘 식당을 마련하고 좋은 식자재를 이용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돌봄 활동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배려’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시간에 격차가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

는 여성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최근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기업 도요타가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보육은 물론이고 초고령화로 인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인 간병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막는 큰 제약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한 데서 기인한다. 일주일에 두 시간 출근하는 재택근무제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데 드는 어려움이 파격적으로 줄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 사회가 여성의 시간을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도요타의 재택근무제는 기업이 직원들의 사적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적근무인 일하는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일본과 여러모로 비슷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인구절벽, 사회적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여성의 시간은 왜 돈이 될 수 없는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전업주부 연봉찾기’ 서비스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가사노동을 했을 경우 일당

은 13만 5,000원 정도라고 한다. 엄연히 노동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성의 노동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시각은 매우 관대하다 못해 비상식적이다. 어머니 혹은 아내의 노동에는 ‘신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이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하고 풀어가야 할 근본 지점이다.

따라서 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시간을 활용했을 때 서로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확인한 후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시간갈등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시간갈등의 양상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해결되는지를 고찰해볼 것이다. 또한 시간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살펴보겠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 중 하나다. OECD 가입 국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년 3위 안에 머물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현상은 ‘헬조선’ 등의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밖에서 오랜 시간 노동할수록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생활시간에 대한 전국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격차는 2시간 41분으로 여성에게 매우 편중되어 있다. 이는 적어도 2시간 41분만큼 돌봄과 가사 부담을 더 떠안고 사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돌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서울의 가사노동시간(돌봄과 기계적 가사노동 시간의 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4.4배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할애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이러한 격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약간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규범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사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수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다. 다만 실제로 가사 부담을 평등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남성의 12.2퍼센트, 여성의 7.6퍼센트만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 돌봄과 일할 권리

---

이쯤에서 ‘돌봄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일할 권리에 미치는 영

향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미니마 모랄리아Minima Moralia》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유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만약 여성이 두려움 없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바람을 실현할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에게 있어 일자리에 대한 자유, 나아가서 일자리에서 노동시간을 줄일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면, 여성에게는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재분배하는 자유가 함께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야 노동과 관련된 권리들이 보완되고 완성될 수 있다.

초기 근대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없었다.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집 안에서 일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이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후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같은 모델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정에서의 노동보다 취업노동이 우선시되면서 취업에 따른 시간적·공간적·사회적 변화가 가족의 영역 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시간과 노동장소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면서 고용되는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기업가로 변신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만 노동시장에서 살아남는 형태가 고착화되었다. 이는 취업노동시장의 밀도를 증

가시켜, 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림자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여성과 남성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

여성과 남성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초기 근대에 작용 하던 ‘남성은 일, 여성은 살림’이라는 성별 경계선은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가정 내의 여성에게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평균노동시간의 차이보다 돌봄 및 가사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의 성별 차이가 훨씬 큰 것이 그 근거다.

서울연구원이 여성과 남성의 시간경험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비록 OECD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직장 내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돌봄과 같은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평균노동시간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격차보다 그림자시간의 성별 격차가 훨씬 심한 것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치워야 하는데, 이러한 그림자시간이 여성에게 편중되면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체로 공적인 영역, 노동시장의 시간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정된 시간으로, 개인이 조율하기 어려운 직선의 시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요구가 커지면 돌봄이나 가사노동의 시간은 위축되거나 압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국처럼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공적영역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들이 공적영역의 시간에 맞춰져서 재배열되는 경향을 떨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한 시간갈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주은의 《기획된 가족》은 여성에게 유독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시간갈등의 문제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출근하기 전 1시간 동안 맞벌이를 하는 사무직 여성이 해야 하는 활동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여준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상이다. 기상과 동시에 남편과 아이들을 깨우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한다. 침실을 정리하고 나와 식탁을 차리고 나서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하고, 온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모든 일을 해치운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부엌을 정리하고 자신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문을 잠그고 나가는 등의 활동이 촘촘하게 배열되는 동

시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돌봄 행위와 자신의 출근 준비라는 필수노동시간이 동시에 겹치면서 시간의 밀도는 매우 높아지고, 이 모든 행위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을 가사노동·돌봄노동의 테일러리즘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 돌봄노동에서 시간갈등을 초래하는 것들

### 하루 중 언제 가장 바쁘냐고요?

서울연구원이 2015년 8월에 실시한 ‘민선6기 서울시정 전반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25.6퍼센트가 오전 6~8시 사이에, 37.4퍼센트가 오후 18~22시 사이에 가장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전 시간대에 걸쳐 직업 관련 활동으로 인해 가장 바쁘다고 응답했다. 아침 6~9시 사이에는 직업관련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바쁘고, 저녁시간에는 직업관련 활동의 욕구와 가사노동,

학업,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욕구가 증척되어 바쁘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시간대별 시간부족의 사유가 다르다. 직업을 갖고 있는 남성은 직업 활동 관련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상당히 높고(63.7%), 여성들은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가사노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75.6%)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무직인 경우에는 더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직장이 없는 여성이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고(80.4%) 가사노동을 하기 때문에(94.4%) 바쁘다고 하는 응답률이 직업이 있는 여성보다도 월등히 높다.

다시 말해 남녀 모두 이른 아침 시간과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가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전후에 시간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는 여성들이 더 높은 비율로 시간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75.6%) 이 수치는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 남성이 가사노동으로 인해 시간부족을 겪는 경우(24.4%)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시간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성 역시 오후 6시 이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가사노동을 부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하나

위 시간갈등 유형에 대한 질문은 독일 지역사회의 가족정책 매뉴얼에서 착안하여 진행했다. 이 매뉴얼에서 시간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자녀, 가족구성원 또는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 본인 또는 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초과근무 및 잔업, 교통체증, 관공서 운영시간이 방문 가능한 시간대가 아닐 경우, 방과후 시간, 휴일 등 자녀의 여가시간에 근무, 본인 또는 파트너의 긴 출퇴근시간, 학교방학, 학교,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파트너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을 때, 가족 또는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서울의 시간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개로 묶어 진행했다.

-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지각, 결근, 조퇴, 휴직 등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 방학 및 학교 등하원 시간 등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다
-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이 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위 설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네 항목 모두 시간갈등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주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위 항목을 바탕으로 시간갈등을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 성별을 기준으로 혼인상태, 자녀유무, 연령, 근무시간, 교육수준,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가족이 아플 경우에는 ‘여성 < 기혼여성 <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서 시간갈등이 심하게 드러났다. 근무시간이 길어 시간갈등을 심하게 경험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고 대신에 기혼인가, 자녀가 있는가, 근무시간이 얼마나 긴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 근무시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한 시간갈등을 경험했다.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 갈등으로, 여성일수록, 자녀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잦은 빈도로 경험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돌봄 시간과 근무시간이 세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 번째로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시간갈등의 경우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조금

더 자주 경험했다. 그리고 자녀가 있고 여성이면서 연령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수록 갈등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자녀나 가족의 질병은 여성의 돌봄 부담으로 작용해 여성에게 더 많은 시간갈등을 초래했다. 자녀의 방학이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공적시간과 단기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도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갈등을 겪었다. 장시간노동은 성별과 상관없이 시간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공적영역에서의 시간흐름이 사적영역에서의 역할분담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간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시간갈등을 일으키는 공공기관의 휴무, 은행이나 관공서의 이용시간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혼인상태, 자녀유무, 노동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지역사회가 직접 만들어내는 시간정책

### 주체로부터 출발하는 지역시간정책 모델

지역시간정책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시간, 공적·사적 서비스시간, 도시의 시간 스케줄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도시의 시간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지향점이다. 특히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9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보첸에서 시작된 ‘도시의 시간-TEMPI DELLA CITTA’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이후

지역시간정책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로 확대되었다. 이 정책의 초점은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적절히 혼합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맞춰졌다.

이러한 정책적인 시도를 일으킨 핵심적인 역할은, 도시에서 일과 가족, 여가시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갈등이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경험,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시간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교통, 학교, 아동, 노인돌봄, 안전, 서비스, 도시계획, 일과 생활의 균형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재배열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변화의 주체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2010년에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가 권고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중 지역시간 계획정책 Local Time Planning Policy은 유럽사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에서 1960년, 1996년 두 번에 걸쳐서 재정과 개정이 되었는데, 이는 이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을 위한 조정위원회 Steering Committee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와 같은 기구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간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지역 현장에서 어떠한 정책을 채택해야 할지에 대해 ‘시간부서 Time Office’를 설치하고, 인

접한 도시의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작은 지자체의 시간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전국 차원의 정책에 대한 고민도 시작했다.

유럽에서 나타난 지역시간정책의 큰 목적은 90년대 이후 유연해진 노동시간과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 이용의 패턴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데 있었다. 도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요소로서, 시간의 관리와 규제를 위한 정책이 공간 계획의 핵심 요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 간 협업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했고, 그 결과 시간부서 또는 '시간 에이전시'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 요소를 포함하여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한꺼번에 참여하여 협력적인 정책 결정을 내고, 시간갈등과 관련해 어디에서 왜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알기 위한 '시간의 지도Chronomaps'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발견해낸 문제 지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독일식 지역시간정책

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지역차원의 연대를 중시한다. 여기서 다루는 정책의 범위로는 시간효율적 이동성, 가족친화적 노동환경과 교육, 유연한 서비스체계의 지원, 서비스 지향의 행정체계, 돌봄 인프라, 접근 가능한 건강서비스, 가족친화적 여가활동 제공 등이 있다. 돌봄과 관련해서 시간갈등의 내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협력 파트너도 모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시간갈등의 원인과 이에 따른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시간갈등의 원인으로 가족의 질병, 불충분한 보육시설과 시간, 근무시간과 학교·어린이집 등교시간 불일치 등을 나열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시간갈등은 보육센터나 보육교사의 수 등 어린이를 위한 돌봄 시설을 조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불충분한 보육시설과 시간으로 인한 시간갈등은 도움이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한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목표가 된다. 근무시간과 학교·어린이집 등교시간 불일치로 인한 시간갈등은 학교나 어린이집의 개방시간을 살펴보고 좀 더 빠른 혹은 늦은 ‘유연한 개방시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 좀 더 상세한 목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가령 학교와 보육시설의 개방시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계획,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교육과 보육시설 서비스 간의 신뢰성 이행은 돌봄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대중교통 수단과의 조정 등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응급치료는 탁아모, 탁아부 또는 가족도우미를 통한 응급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며 방학 동안의 진료는 회원제를 통한 응급지원센터로 가능하다.

여기서 공공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시간은 부모의 근무시간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독일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돌봄 및 교육 인프라 분야의 협력 측정 사례다. 누구와 행동을 함께할 것인지, 목표가 되는 지역을 세분화할 것인지, 현재 협력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협력방안을 추구해야 할지 등에 따라 측정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독일의 돌봄 및 교육 인프라 분야의 협력 특정 사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및 교육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	유연한 개방시간
지역단체에 연락, 가족·기업 간 정보 공유			
부모/가족/보호자			
무료자원/자선단체/교회			
보육/유치원			
데이케어			
학교·교육청·학교 관리			
부모와 학생 위원회			
청소년 사무실과 청소년위원회			
사회복지사무소와 사회위원회			
정부 관리·학교 관리사무소			
가족/가족사무실을 위한 제휴			
가족센터/멀티세대 주택			
경제 개발 및 경제 개발위원회 사무실			
기업, 직원			
상공 회의소			
직업센터			
협회, 레크레이션 시설			
시민 참가			
대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세 정보			

# 그림자시간에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시간으로

## 시간갈등 해소의 주체가 되는 3가지 영역

시간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매크로Macro 레벨, 메조Mezzo 레벨, 마이크로Micro 레벨,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 3가지 단계에서 골고루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매크로 레벨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공공화하면서 그림자시간에 속했던 돌봄노동을 공통 영역으로 상당 수준 끌어올렸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서울형 데이케어Day Care 등의 정책을 꾸준

히 확장해 가사 부문의 그림자시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매크로 레벨에서의 시간 정책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메조 레벨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시간갈등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서울의 다양한 자치구에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협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실행되고 있다.

세 번째 마이크로 레벨 즉 사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30~40대 양육대들이 등장하여 일 문제만큼이나 가족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양육 시간을 줄이고 휴가나 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현황(2013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1,178만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3퍼센트인 505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극도의 시간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기계적으로 접근한다. 야근 중인 아내 대신 정시 퇴근을 하는 남편을 동료들은 비아냥거리고 직장맘의 경우 가족, 특히 어머니의 도움 없이

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저녁이 없는 삶'이라는 전례 없이 팍팍한 신조어를 만들어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간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개인이 아닌 사회 모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림자시간에 불과했던 돌봄과 가사 시간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기업, 지역, 지방·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시간주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주체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시간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주체로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이 시간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또 그에 맞는 문제 해결방식을 취해야 한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hapter 05

---

기적을  
이룬 시간,  
기쁨을  
잃은 시간

· 황윤옥 ·

---





# 기-승-전-

## 공부시간

### 학교라는 공간, 학교라는 시간

중학교 때(초등학교 때가 아니다) 친구들을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을 헛갈릴 때부터 길치가 나의 평생의 지병(?)이 되리라 예상은 했었다. 이후에도 길치로서 위엄을 떨친 일화들이야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도 주변도 그러려니 하고 산다. 길을 헤맬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면 주로 듣는 조언은 “일단 처음 출발한 곳으로 가봐. 거기에서부터 다시 설명해줄게”라는 말이다. 아무래도 뭔가 꼬여 있는 일을 풀기 위해서는 맨 처음 내가 서있었던 곳

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맞다. 이 글의 주제를 처음 받은 시기는 지난해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몇 년 전부터 수능 이후에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같은 수석자 인터뷰가 아니라 수능 성적을 비판한 학생의 자살 기사를 접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되었다. 지난해 수능 때도 수능 성적에 낙망한 삼수생의 투신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시공간에서의 시간을 살피본다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난감하기도 했다. 교육이라는 시공간의 상황이 결코 혼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은 어떻게 쓰든 우울할 것이 뻔했다.

교육은 축구처럼 온 국민이 다 한마디씩 거드는 종목이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해에는 온 국민에게 감독 호르몬이 넘친다. 응원과 훈수로 보면 교육도 더하면 더했지 뒤쳐지지 않는다. 교육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들 모두 모이라고 하면, 아마도 시청 앞 광장을 뒤덮었던 ‘붉은 악마’ 정도는 훌쩍 넘기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요즘 교육에서는 골이 터지는 환희가 없다는 것이다. 공을 몰고 골문 앞으로 가야 슛이라도 하는데, 선수와 골과 골문이 서로 엉켜 있는 형국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교육.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이 어디였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먼저 우리에게 학교는 무엇이었는가.

왜 ‘학교’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에게 ‘학교에 다닌다’는 의미

는 곧 ‘교육을 받는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은 학교가 아니며 교육과 학교를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은 교육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며, 학교에 다니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며, 공부를 하는 것은 수업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데 엮어놓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학교의 의미는 다양하게 변화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심훈의 《상록수》\*에서는 학교가 무지를 일깨워주는 배움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주인공 채영신은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고 간절하게 말한다. 여기에서 학교는 ‘말과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선한 계몽적 역할을 하는 시공간이다. 1960년대에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의 학교는 산업화시대에 사회적인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긴요하게 작동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는 한 집안의 명운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학교였다. 당시 ‘교육과 학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사회적 탈출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특히 산업화는 시간의 의미와 사용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는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

---

\*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심훈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곧 배움을 의미했고 그 배움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는 힘이였다. 이에 대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의 저자 엄기호는 학교가 “지식습득의 장, 계몽의 공간, 신분상승의 도구,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곳”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 그때는 ‘학교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시간’도 중요했다. 학교에 오래 머무를수록 공부시간이 많은 것이고, 공부시간에 비례하여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부의 획득도 확실해진다고 믿었다. 흔히 “가방 끈이 길다”는 말은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많고, 그 시간만큼 교육의 수준도 높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애초에 학교는 좀 다른 의미로 출발했다. 학교를 뜻하는 School의 어원은 희랍어 Schole이다. 희랍어로 Schole는 ‘여유’와 ‘한가함’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Schole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요소라고 보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즐기는 여가, 한가함이 있어야 배움과 성장을 향한 삶의 모습이 제 꼴을 갖춘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 School이라는 말에는 장소의 의미와 생활, 보내는 시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여가의 시간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여가의 시간, 한가함의 시간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대신

공부시간\*으로 모두 채워 넣었다.

교육의 시간이 교육 - 학교 - 공부 - 수업으로 계속 좁아지면서 학생들 역시 좁아지는 시간 속에 갇히게 된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시간은 곧 공부시간이고 공부시간은 곧 수업시간이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도 또 공부시간이 기다리는데, 바로 학원시간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시간은 수업시간과 학원시간으로 좁혀진 상태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도 공부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 거의 없는 아이들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교과과정 이외에 아이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보장하는 창의체험활동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과목 시간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학생 자치회의처럼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들도 ‘기타’ 시간 정도로 취급되곤 한다. 학생들이 자치회의에서 토론과 협의를 경험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시간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학교의 시간 구성에서는 학생 자치회의를 위해 한

---

\* 여기에서의 공부시간은 ‘공부’의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 인지학습중심의(학교 혹은 학원의) 공부시간을 의미한다.

달에 1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버거워한다.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다.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국가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공감하고 부러워하면서도 학교도 부모도 동아리활동이나 취미활동은 공부시간이 모두 충족된 이후로 미룬다. 심지어 유치원조차도 공부시간에 매달린다. 지인 중 한 엄마는 아들을 모래놀이터가 있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주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르고 골랐다고 한다.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이 하루 종일 건물 안에만 있으면 갑갑할 것이니, 마당에 모래놀이터가 있으면 늘 모래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녀른 마당과 모래놀이터를 갖춘 유치원에서 정작 아들은 모래놀이터에 나와 놀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 유치원은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는데, 그 평판의 핵심은 아이들을 '그냥' 놀리지 않고 '요모조모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허탈했다. 모래놀이터라는 공간이 있어도 모래놀이를 할 시간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나이는 고작 네다섯 살이다.

## 50 vs 17.5 – 용웅이와 로우페의 시간\*

---

용웅이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용웅이는 반에서 줄곧 1등을 다룰 정도로 성적이 좋은 이른바 ‘엄친아’이며, 사회에 나가서는 변호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로우페는 핀란드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스카우트의 리더이며, 취미로 스노보드를 즐긴다. 현재 생활에 충실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장래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둘의 하루 시간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오후 4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용웅이는 곧바로 일본어 수업을 받는다. 일본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 하고, 학원에서 용웅이의 수업은 밤 10시까지 이어진다. 밤 10시 반, 학원에서 돌아온 용웅이는 그제야 늦은 저녁식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다시 책상에 앉아 있다. 로우페도 용웅이와 비슷하게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하여 책상 앞에 앉는다. 로우페는 용웅이처럼 과외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 아니라 학교 숙제가 가장 먼저이다. 또 로우페의 공부시간은 하루에 2시간을 넘기지 않

---

\* KBS1 프로그램인 <명견만리>는 홈페이지에 “매주 1명의 유명 인사가 출연, 각종 미라이슈에 대하여 취재한 내용을 VCR과 대중강연의 형식을 통하여 청중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이룬다. 우리사회 절박한 미라이슈를 다루는 ‘프레젠테이션 쇼’라고 소개되어 있다.

는다. 숙제를 마치고 나면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자유시간을 갖는다. 로우페의 오늘 마지막 일과는 소형 오토바이 학원에서 교통법규 수업을 듣는 것이다. 용웅이가 학원에 있을 동안 로우페는 저녁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학교 수업을 제외한 용웅이의 학습시간은 일주일 동안 총 50시간. 로우페는 17.5시간이다. 용웅이의 공부시간은 로우페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나 용웅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강남지역은 더할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안하면 뒤처지게 되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KBS1 TV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한국의 중학교 3학년과 핀란드의 중학교 3학년의 하루 일과이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 대부분을 정말 공부만 하고 있었다. 용웅이와 로우페의 주당 공부시간은 거의 3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절대시간도 차이가 나지만 시간의 구성도 참 다르다. 로우페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 제 시간에 먹는 저녁을 용웅이는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 반을 더 넘긴 시간에 먹는다. 용웅이는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 취미 활동 시간을 가장 뒤로 미루지만 로우페는 학교 숙제와 취미활동, 저녁식사 등의 시간을 우선으로 한다.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OECD가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국가별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능력을 수치화하는 평가이다. 이 PISA에서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늘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이 평가 결과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속이 편치 않다. 2006년의 경우 PISA에서 1위였던 핀란드와 2위였던 우리나라는 학습효율화지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핀란드는 효율성 역시 1위였지만 우리나라 학습효율화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 최하위권이였다. 우리나라가 획득한 2위라는 성취결과는 그야말로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해서 얻은 결과였다. 공부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학습효율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용웅이와 로우페의 공부시간 차이는 PISA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핀란드 학생의 주당 공부시간은 38.46시간(학교 30시간, 개인 8.46시간)인데 비해 한국 학생은 69.49시간(학교 50시간, 개인 19.49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대부분 반납하고 50시간 이상을 공부하여 이루는 결과를 핀란드의 아이들은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들여서 해내고 있는 것이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만족도의 경우도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2009년에도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1~3위권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수학에 대한 자

---

\* 학습효율화지수는 한 시간 동안 공부해서 몇 점이나 점수를 올리는지 분석한 지수다. 즉 동일한 성취결과라도 적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서 얻는 것이 학습효율이 높다.

신감과 흥미가 50개국 중 각각 47위와 49위,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각각 50위, 47위로 나타났다.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스스로는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공부는 엉덩이의 힘’이라며, 책상에 앉으면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시간의 한계효용에 대해 왜 우리는 묻지 않는가.



## 시간의 설계자들 - 엄마와 학원 그리고 교육부

공부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아이들의 시간. 과연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성장하면서 시간이 내 인생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때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엄마의 손목시계를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에는 중학생이 되면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걸어서 다니던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리여서 요긴하기도 했지만 중학생이 되어서 받는 손목시계는 이제 “네 시간은 내가 관리해라”라는 의미였다. 성장에 대한 격려이기도 했고 시간관리가 자기 생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의 출발이라는 의미이기도 했

다. 그랬다. 손목시계는 부모가 관리하던 시간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계기능이 포함된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니, 손목시계는 장식용에 더 가깝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더 일찍 자립하여 자기 시간을 관리하게 된 것일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의 시간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준다. 아이들이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더 촘촘히 아이들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시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시간의 양은 모두 동일하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그런데 공평하게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한 시간을 두고 누군가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누군가는 24시간을 12시간처럼 쓰게 된다. 절대시간은 같지만 시간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상대적인 시간은 달라지는 것이다. 손목시계로 자기 시간을 관리하던 나의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시간의 내용과 구성은 아이들 각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공부시간을 어른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중학생의 손목시계는 없다. 시간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루어내는 성취도 달라지므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시간에 개입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질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설계자들이 등장한다. 바로 엄마와 학원과 교육부이다. 혹은 가족과 시장과 정부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이 시간설계자들에 의해 재설계된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의 상대적인 시간은 그 질과 양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정작 스스로 누리는 시간은 빼앗기고 시간이 공평하지 않게 쓰이고 나뉘고 사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선 첫 번째 시간관리자는 매니저인 엄마다. 엄마가 왜 매니저인가. 이런 얘기는 이미 진부하니 생략하기로 하자. 매니저 엄마들의 활약상 역시 이미 드라마로도 여러 편 만들어졌을 만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무릇 매니저의 핵심 업무는 일정관리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간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으니 시간의 상대적인 효율에 매달린다. 그리고 엄마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시간에 투영한다. 주당 50시간을 공부에 쓰면서도 “강남 아이들은 더 할 것”이라고 말하는 용용이의 불안은 사실 엄마의 불안이다. 불안한 엄마는 아이들의 공부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공부 이외의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또한 공부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매니저 엄마의 노력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일명 ‘사도세자 책상’이라고 불리는 ‘스터디룸’ 책상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지금도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대치동 엄마들 사이

에서 난리 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스티디룸 책상은 가로 1.1m, 세로 0.8m, 높이 2.1m의 옷장형(?) 책상이다. 아이가 책상에 앉으면 문을 닫고 '공부만'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일반 학생용 책상보다 훨씬 고가의 이 책상이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웃픈(웃기고 슬픈) 이야기이다.

학원은 이렇게 불안과 효율 사이에서 방황하는 엄마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학원의 시간 상품들은 가히 축시(縮時)의 경지이다. 무협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간혹 읽곤 했던 무협지에서 내공이 절정에 이른 도인들은 종종 축지법(縮地法)을 쓰곤 했다. 공간이동을 하는 축지법을 쓰는 도인이 등장하면 이미 승부는 결정 난 것이었다. 흔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경지”인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축시법(縮時法)을 쓰는 학원들에게 엄마들이 게임이 되겠는가. 수능까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능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엄마들의 믿음이다. 그러니 ‘시간을 아껴준다’는, 그것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준다는 학원들의 축시법 앞에서 엄마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록, 시간의 효율이 높을수록 시간의 값은 올라간다. 명강사들의 명강의는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장착한 시간단축 내공이다. 이 시점에서 부모의 소득이 아이들의 시간에 작동한다. 효율이 높은

시간 상품을 살 수 있는 부모들은 이른바 금수저급 부모들이다. 아이들의 시간이 시장에서 학원에 의해 거래되면서 아이들은 같은 시간을 보내되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욕망과 학원의 시간설계가 만나면서 시간상품의 진화는 현란해진다. 학습을 위한 수업은 기본이고 자기소개서 대행,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입학전형 관리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시장과 학원에서 제시하는 시간상품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시간을 벌고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어쩐지 시간에 다시 쫓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KTX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속 300킬로미터를 넘는 그 어마무시한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을 반 이상 단축시켜 주었다. 전국 하루생활권이라는 말에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도 하루 숙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매력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좀 더 여유가 생겨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부산 출장도 하루에 해치우는 게 되었을 뿐 다음 날에는 다른 일정들을 짜게 된다. 그나마 1박 2일로 부산을 오가며 기차에서, 숙소에서 느긋하게 보냈던 시간들만 사라진 셈이 되고, 우리는 어쩐지 더 바빠진 것 같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학원을 다녔으니,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이제 그 아낀 시간을 쉼과 취미 등 다른 곳

에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그 아낀 시간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시 공부시간이 되고 그 공부시간은 효율적이야 하니 다시 학원으로 향한다. 아, 이 시간사용의 악순환.

시장과 학원이 시간을 상품화한다면 교육부는 학제와 입시 제도를 통해 시간배분권을 독점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구분되는 학제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10분은 교육부에 의해 배분된 시간들이다. 이 시간배분에 따라 학제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12년 이상 보내야 하는 학교시간이 구성된다. 그런데 이 시간구성은 학생들의 배움의 흐름을 따라 구성되었다기보다는 다분히 ‘관리를 위해’ 구성된 시간들이다. 대표적인 시간구성이 카네기단위인데,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의 이사장이었던 헨리 S. 프리쳇(Henry S. Pritchett)이 ‘일주일 에 5교시씩 한 학년 동안 가르치는 과정’을 한 ‘단위’로 정의하고, 학업 분량을 제대로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의 표준화가 진행되었고, 학년제 학교와 카네기단위는 학교의 공부시간을 측정하고 배분하는 기본단위가 되었다. 우리의 연간 수업시수와 ‘고정된 시간표’가 나오게 된 출발이다. 애초에 미국에서 카네기단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관리의 편리함’이 가장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공부 중독 vs 공부 중독

인터넷 서점에서 '공부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공부 중독에 관한 책이 두 권 나온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판매순위 1위와 2위의 책이다. 1위는 공부 중독 사회, 공부 중독 증상에 대

\* 노동시간센터가 기획한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코난북스, 2015)라는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시간의 모습을 여러 분야와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육과 시간 역시 이 책의 '이런' 시간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염려를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의사 하지현의 대담형태로 풀어나간 책이다. 2위는 학습발전소 소장 김문수가 지은 공부 중독 학습법에 관한 책이다. 엄기호와 하지현의 책에는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라는 부제가, 김문수의 책에는 ‘전교1등 학습법’이라는 부제가 각각 붙어 있다. 이 두 책은 공부 중독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룬다. 먼저 김문수는 “선생님, 그런데 공부에 중독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나요?”라는 어느 엄마의 호소를 듣고, 공부 중독 학습법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는 “공부 중독자는 공부를 할 때 평온함을 느끼고 쾌감을 얻는다. 공부할 때 쾌감과 평온함을 얻는다면 공부 중독은 이 세상 어떤 중독보다도 좋고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책에는 ‘공부 중독 12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간단 요약 4주 프로그램도 있다. 그에게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최고의 목표이다. 그에게 공부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이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써 활용된다. 또한 졸업한 대학의 이름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회진출의 장벽 높이가 달라진다. 공부를 잘하면 돈에서도, 지위에서도, 연애에서도 우선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취직에 있어서도 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후한 점수를 받을 확

률이 높아진다. 이런 선택권과 우선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랫동안 인내한 학생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김문수 소장의 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가 공부에 대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엄기호와 하지현의 《공부 중독》은 바로 이러한 공부우선상태, 공부몰입상태를 염려한다. 공부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공부 중독은 공부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고 계속 공부에 머물러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부 중’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삶이 사라지고 공부 자체가 삶이 된다는 것인데, 공부를 하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엄기호와 하지현이 공부 중독의 가장 큰 ‘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유예’이다. 사회적 역할을 하는 성인으로서 실제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을 유예하는 것, 링에 올라야 할 시간을 미루면서 계속 ‘나는 공부 중,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엄기호는 석사학위를 4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보았단다. 공부가 재미있고 공부가 좋고 그러니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부시간은 계속 많아지는데, 정작 실제 삶의 시간들은 줄어드는 것이다.

중독의 기본은 무엇인가. 일정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꾸준히 반복되는 시간의 양이 채워져야 중독이 된다. 공부 중독 학습

법도 매일 일정시간 공부에 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엄기호와 하지현도 공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의 양이 결국 다른 시간들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게 하는 것을 염려한다. 그런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은 이미 우리 아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부 중독’에 이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 성당의 첨탑은 하늘에 대한 공경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텍스트이다. 공간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시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에 스미는 텍스트이다. 지나온 시간들은 차근차근 그 사람의 몸에 배여 있는 법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공부 중독에 들인 시간은 다시 우리 아이들을 역습한다. 시간은 ‘습’이 되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7분 58초짜리 영상 하나가 떴다. 제목은 ‘자전거 타는 법 잊어버리기’.\* 이 영상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아무리 머리로 이해한다 해도 한번 몸에 익은 ‘습’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상 이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데스틴이라는 영상의 주인공은 기발한 실험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던 방식과는 다르게 자전거를 타는 실험이었다. 보통 자전거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런데 데스틴

---

\*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ml6P9k3yQGQ>)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는 특수 자전거를 만들었다. 데스틴은 자전거 타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웠고 능숙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반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적어도 머리로는 말이다. 데스틴이 이 특수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데스틴은 처음에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데스틴이 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무려 8개월이 걸렸다.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자전거가 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에 붙은 자전거 타기의 습관을 버리는 데는 8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공부시간을 대입해보면 공부 중독 상황이 바로 이해될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만 셈해도 1만 시간이 넘는다. 이 시간을 공부만을 위해 지낸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미 시간은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습’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시간의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 블랙홀의 시간 vs 무중력\* 의 시간

---

매일 아침 일곱 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꼭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우릴 덩씩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밝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매일까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

\* 무중력의 시간이라는 명칭은 이충한 유저살롱 공동대표가 말하는 무중력의 의미에서 빌려왔다. 이충한 대표는 세바시 463회 “무중력시대, 유유자적한 시간의 힘”이라는 강연에서 무중력 피플이란 어떠한 중력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동등 떠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충한 대표의 강연에서는 무중력이 가지는 잠재력을 보고 있지만 이 글에서의 무중력은 그냥 ‘의미나 소속감이 없이 떠있는 상태’ 자체를 말한다.

(중략)

됐어(됐어) 이젠 됐어(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족해) 이젠 족해(족해)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래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이젠 생각해봐 “대학” 본 얼굴은 가린 채 근엄한 척

할 시대가 지나버린 건 좀 더 솔직해봐 넌 알 수 있어

(중략)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가사 중에서

고등학생의 시간은 2가지로 나뉜다. 수능과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해마다 11월이면 듣기평가시간에는 비행기조차도 멈추게 한다는 '위력의 수능'이 치러진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고3 교실은 당연히(?) 파장 분위기이다. 졸업까지 수업일수가 남아 있지만 누구나 고3은 수능과 함께 '종 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늘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들고 나온다. 학사일

정을 지켜서 단축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생들과 부모들은 오로지 수능에만 맞추어 달려온 학교가 새삼스럽게 ‘정상적 교육’을 운운한다는 것에 어처구니없어 한다.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는 “대학 가게 공부하라며? 그럼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공부한 거 수능으로 다 풀어내고 나면 당연히 수업 들을 필요 없지? 고등학교를 대학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만든 게 자기들이면서 왜 고3들이 수능 끝나고 수업 안 듣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수능이 끝난 이후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학교도, 사회도 입장이나 대책이 없다. 고등학교 내내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하루 만에 수능을 치렀으니, 이제 ‘수업을 들을 의미는 사라졌고’, 대신 ‘시간이 남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간이 남다니, 학교, 부모, 아이들 모두에게 낯선 상황이다. 낯설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수능 이후 졸업까지의 시간을 ‘고삐 풀린 고3 학생들이 사고 칠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운하며 교실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한다. 이 수능 이후의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중심으로 얼마나 단순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준다.

수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의 시간이 하루에 압축되는 경

험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동안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을 분산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입학선발과정은 없고,\* 오로지 대학 입학과정에 선발을 집중한다. 대학 입학이 한판 승부가 되다 보니, 수능일 하루에 경쟁이 집중되고 수능일의 시간 집약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이 시간 집약적 경쟁을 버텨내고 시간의 압축을 감당한 아이들만이 대학에 입학한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보상 심리는 압박과 압축을 같은 양과 질로 감당하지 않고 동일한 결과를 획득했다고 여겨지는 옆의 친구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다.

14일 서울대의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지역균형 선발 출신 학생들을 비하하는 글들이 손쉽게 검색됐다. 한 재학생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입시에 ‘지균’으로 합격한 학생 중 수리 5등급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수능 5등급 실력으로 내신 1등급을 받았으니 출신학교 수준이 뻥하다”고 비아냥댔다. 심지어 ‘지균충’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지역균형선발의 약자 ‘지균’에 ‘벌레 충(蟲)’자를 합쳐 폄하하는 말이다. 저소득층·농어촌학생·장

---

\* 특목고 등의 입시가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 비율도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역시 선발이 아니라 ‘진학’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애인·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 출신 학생은 ‘기균층’이라고 불린다.

서울대생들이 친구를 별레로 여긴다는 사실을 다룬 기사이다.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한심해졌냐고, 혀를 끝끝 찻지만 일부 서울대생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후진 안목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내가 지낸 시간이 네가 지낸 시간과 다르다”는 차별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기사의 서울대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시간이 계속 쌓이면서 우월감으로, 혹은 더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압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혹은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한’ 심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의 불리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친구들을 별레라고 후벼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서울대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성적이기 때문에 ‘수리 3등급 따위’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서울대생들의 4년 평균성적 결과이다. 서울대의 발표에 따르면 ‘기균층’, 혹은 ‘지균층’으로 불리는 학생들의 4년간 평균성적이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1학년 때에는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을지

모르지만 지역균형이나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4년 동안 더 높은 성적 상승을 해낸다는 것이다. 수능에 올인하여 성공을 거둔 아이들이 대학입학 이후의 시간에서는 오히려 주변에 상처를 내며 스스로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수능에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의 시간, 혹은 수능의 성공을 바라보기 힘든 아이들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를 좀비, 혹은 방석이라 부른다. 몸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영혼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좀비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성적을 깔아주는 방석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시간은 수포자(수학포기자)로 시작하여 잠자는 것으로 유지된다. 잠을 잔다는 것은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잠은 시간의 유예이자 삶의 유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무중력 상태의 대표적인 증상은 감각의 마비이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드라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면 아래로 자막이 깔린다. 강호동이 화났다는 것을 강호동의 표정이 아니라 자막을 보며 알게 되는 식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이 알려주면 내 감정이 생긴다. 30초면 리모컨이 돌아간다는 TV 환경에서 언제 보고 느끼며,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겠는가. 자막으로 감정들을 알려주면 된다. 아이들의

무중력 상황도 비슷하다. 공부에 성공적으로 몰입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다른 감각이나 감수성을 발견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자막을 읽으며 예능을 보는 것처럼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좀비로, 방석으로.

이러한 시간의 이중성은 한 아이에게서도 나타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학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블랙홀의 시간과 무중력의 시간들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아이에게는 공부만 하는 블랙홀의 시간과 그 외에는 행주조차 짜지 못하는 무중력의 시간이 있다. 공부와 성적, 대학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좀비와 방석, 잉여가 되어 무중력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 또한 학교들 사이에서도 오로지 대학입시에 빠져 있는 블랙홀의 특목고와 교실의 반 이상이 잔다는 무중력의 일반고가 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로 시작하여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암묵적인 서열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특목고는 카츨사, 자사고는 공군, 특성화고는 특기병, 그리고 일반고는 육군 보병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고 한다.

## 애완(견)의 시간 vs 난민의 시간

‘기적을 이룬 시간, 기쁨을 잃은 시간’이라는 이 글 전체의 제목은 다니엘 튜더(Daniel Tudor)라는 영국인 저널리스트가 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에서 빌려왔다. 다니엘 튜더는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열기와 흥분을 잊지 못하고 대학 졸업 후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게 되면서 한국인의 속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가 본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경이’와 ‘경탄’과 ‘경악’으로 표현되는 ‘불가능한 나라’이다. 그에게 한국은 경이롭지만 경악할 사회인 것이다.

‘불가능한 나라’라는 말에는 좀 더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인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인 것이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 면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뿐 아니라, 이를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불가능한’ 나라인 것이다.”

사실 한국인이 이루어낸 경이와 경탄 역시 놀라운 시간의 집약과 몰입, 반복의 결과이다. EBS의 <다큐프라임>에서 다룬 ‘서울

대 A+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서울대에서 A+ 학점을 받는 학생들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다. 비밀은 간단하다. 수업을 듣는 교수의 말 한마디, 좀 과장하면 숨 쉬는 소리까지 녹음하고 받아 적어서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다. 필기할 때 요약은 서툰 것이다. 교수의 미세한 표현들을 놓치기 때문이다. 시험 때는 교수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쓰고 교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예 답안지에 쓰지 않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생각은 아예 떠올리지조차 않는 것이다. 연구팀은 2학년 이상 학생들 중 두 학기 연속해서 학점이 4.5점 만점에 평균 4.0을 넘은 학생 46명을 인터뷰했고, 이어서 메일로 서울대생 약 1,200명을 조사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하던 방식 그대로 수업내용을 수용하여 암기한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했다. 2009년 이 연구를 시작한 이혜정 교육과학연구원 소장은 처음에는 최우등생의 공부 비법을 찾아내 다른 학생에게도 알려줄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후에는 발표와 배포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울대 학생들의 A+ 학점의 비법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자신의 생각을 성숙 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답이라고 제시된 길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공의 삶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칭찬받기 위해 애쓰는 애완견과도 닮아 있다. 학교에서부터 말 잘 듣고 잘 짜인 학원시간표에 따라 살아온 시간들은 결국 나의 욕구가 아니라 힘을 가진 주인의 욕망에 부응하느라 온 시간을 보내는 애완견처럼, 사회적 성공이라는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 나의 생각과 의지를 접고 정해진 길을 순진하게 따라가는 애완의 시간으로 귀결한다.

애완의 시간이 성공을 향한 시간이라면 다른 한편에는 성공을 꿈꿀 수 없거나 기회조차 잡기 힘든 난민의 시간이 있다. 사토리 세대와 N포 세대가 바로 그들이다. 사토리 세대는 자동차나 고급화장품, 해외여행 등 흔히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무관심하고 돈이나 명예, 권력에도 욕심이 없는 일본 청년들을 뜻하는 말이다. 원래 사토리란 ‘깨달음’ 혹은 ‘득도(得道)’라는 뜻인데, 마치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토리 세대라 부르는 것이다. 사토리 세대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닥친 장기불황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순응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욕망을 줄이게 된 것이다. 일본에 사토리 세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N포 세대가 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출발했다. 이후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을 포기한 5포 세대, 5포에 더하여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까지 이르게 되고, 7포 이후에는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N포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이 세대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노오오력’을 해야 한다. ‘노오오력’은 그냥 ‘노력’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100퍼센트 발휘하는 것으로는 어렵도 없다. 100퍼센트가 아니라 120퍼센트, 150퍼센트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노오오력’의 시간 역시 나의 만족감이나 기쁨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한 생존의 시간일 뿐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은 대학까지 줄곧 공부에만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다시 ‘노오오력의 시간’을 요구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와 힘이 되고 있는 것인가.

## 시간의 재구성 - 전환의 시간

### 힐러리에게 암소를

“네 인생에서 4박 5일도 못 꺼내면서 그게 어떻게 네 인생이냐?” 김제동이 스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다. 김제동이 하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하니, 스님이 4박 5일만이라도 절에 내려오라고 하셨더라. 그런데 김제동이 바쁘다고 몇 번을 미뤘더니, 그때 스님이 “넌 누구의 인생을 사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제동이 “내 인생이죠”라고 했더니 “네 인생에서 4박 5일도 못 꺼내면서 그게 어떻게 네 인생이냐”고 했다는 것이다. 자기 인생의 시간

을 마음대로 여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김제동뿐이겠는가.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에서, 속물적인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은 결국 속물과 잉여로, 애완과 난민으로 결국은 어느 쪽도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을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일등공신이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우리는 다른 시간의 생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다른 시간의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다른 셈법을 한다는 것이다. 1995년, 당시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방글라데시 농촌마을 마이샤하티를 방문했다. 힐러리는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소액대출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고, 예상대로 소액대출사업이 가난한 농촌 여성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해했다. 마을의 여성들은 힐러리에게 우리는 스스로 벌고 있으며, 이제는 소나양 같은 자산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을 여성들과의 모임이 마무리 될 무렵, 마을 여성들이 힐러리에게 물었다.

“힐러리, 당신은 암소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자신의 소득이 있나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없어요.”

“그럼 당신의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딸 하나예요.”

그러자 마을 여성들이 술렁거렸다. “불쌍한 힐러리, 그녀는 소도 없고, 자신의 소득도 없고, 딸도 하나밖에 없다네.” 마이샤하티 여성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날 모임은 불쌍한 힐러리에게 암소 한 마리를 선물해야 한다는 바램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마이샤하티 여성들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대통령 영부인이 가진 부와 권력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을 모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마이샤하티 여성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부와 가난을 나누는 서양의 썸범에 수긍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썸범을 당당히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는냐’를 물었을 때 마이샤하티 여성들은 필요한 만큼 스스로 벌고 있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다. 그러나 힐러리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에코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Maria Mies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젠Veronika Bennholdt-Thomsen이 쓰고 꿈지모(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에서 옮긴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를》이라는 책에 자세히 담겨 있다. 저자들

은 스스로 생산하여 생활하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생활하게 되면서 공급사회가 갖는 불안에 점령당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급사회란 내게 필요한 물품들을 늘 돈을 주고 공급받아야 하는 사회이다. 공급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공급되는 물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만 한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농부들이 먹고 남은 것을 팔았다. 그러나 자급경제에서 화폐경제로 넘어오면서 요즘은 생산자들도 팔고 남은 것을 먹는다. 과일이든 전복이든 가장 좋은 것은 도시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되고 나머지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공급사회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급사회의 핵심은 바로 ‘불안’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다. 어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낮고,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기를 바란다. ‘장래희망은 공무원, 꿈은 임대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불안’에 대한 마리아 미즈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젠의 해법은 명료하다. 바로 자급의 삶이다. 물론 자급의 삶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고, 예전 농경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급의 삶을 택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다른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교육과 시간이라는 우리의 주제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시간의 소비자로 살고 있다. 불안과 효율을 오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시간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던 시간을 멈추고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른 시간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 시간을 전환의 시간이라고 부르자. 이 전환의 시간은 우리가 경쟁과 소비의 시간을 택함으로써 잃게 된 우리 시간의 기회비용을 찾아오자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면서 치르게 되는 기회비용은 너무 비싸다. 공부시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잠과 쉼, 그리고 여유의 시간들이다. 결국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세상을 보는 시간,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전환의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나는 공교육에서의 시간의 재구성이고, 하나는 공교육과 대안교육현장이 협력하여 시간을 재구성해본 경험이다.

## 하루를 바꾸는 30분 : 9시 등교, 하루가 바뀌면 12년이 바뀐다

등교 시간을 8시 30분에서 9시로 30분간 늦춘다. 아마도 9시 등교는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간명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 30분의 의미와 파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아침 시간 30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0교시'에서 '야자(야간 자율학습)'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던 시간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MBC에서 방영되었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쌀집 아저씨로 불리던 김영희 PD가 연출한 이 프로그램에는 신동엽이 진행하는 '하자하자'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0교시 때문에 아침밥을 굶고 등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여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0교시는 1교시가 시작되는 9시 전에 일찍 등교하여 보충수업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아침밥을 굶고 등교하다가 신동엽이 날라주는 아침밥을 보면 환한 표정을 짓고 행복해했다. 마음이 짝해지는 장면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예능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교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했고, 0교시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0교시는 사라졌지만 입시와 경쟁에 급한 학교의 시간은 1교시를 더 이른 시간에 배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아침은 그대로인 셈이 되었다. 다시 0교시부터 야

자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시간구성이 된 것이다.

느낌표의 '0교시 대신 아침밥 먹기'가 예능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면 이번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제안이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2014년 6월 경기도 의정부여중 3학년 사회과목 수업시간, 학생들은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해 모둠별 토론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교육정책들을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에게 직접 제안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책제안들을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고, 여기에는 9시 등교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9시 등교를 시행했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정리한, 9시 등교를 해야 하는 근거들을 보면 놀랍다.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수면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멀리서 통학하는 통학생을 위한 등교시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오히려 수업시간에 집중도가 향상된다는 점,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이어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9시 등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시간구성을 바꾸는 교육정책이 되었다. 특히 서울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토론을 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9시 등교에 대한 최종결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결정과정에는 반드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엄마와 아빠와 9시 등교에 대해 토론하는 경험이었고, 등교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도 있는 시간임을 인식하는 경험이 되었다.

9시 등교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나자, 소감과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아침에 잠을 더 잘 수 있다’, ‘아침밥을 먹는다’, ‘아침에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는 시간이 생겼다’는 등의 답변으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실 9시 등교의 안착이나 성공 여부는 9시로 등교시간이 30분 늦춰졌기 때문에 무엇이 불편한가 혹은 무엇이 좋아졌는가가 초점이 아니다. 이미 9시 등교를 제안한 의정부여중 학생들이 수면권과 건강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9시 등교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학교의 시간구성이 이미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입시 때문에’와 같은 이유로 모르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조차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 수능일과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9시 등교를 반

대했다. 수능시험일 단 하루의 시간의 흐름이 우리 고등학생들 3년의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9시 등교가 아침밥과 아침의 여유를 보장하는 30분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생들의 아침을 바꾼 그 30분은 학생들의 1년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1년이 바뀌면 12년도 바뀔 수 있다. 나는 9시 등교의 그 30분이 12년 동안 한결같이 동일한 시간구성을 반복하고 있는 학교의 시간을 흔드는 출발이라 믿는다. 아니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루를 바꾸는 30분이 결국은 12년을 바꾸게 될 것이다.

#### 삶의 전환을 위한 1년의 항해 :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나는 오디세이학교로 왔다. 이제는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다. 가슴을 펴고 많은 청소년이 속해 있는 공교육을, 우리 사회를 바라본다. 오디세이학교에서 보았다.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끼와 재능이 있음을. 각자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할 때면 모두가 빛을 냈다. 차별은 없었다. 저마다의 다름만이 있었다. 그 다름이 존중되고 평가받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빛을 낼 수 있었다.

- 오디세이학교 1기 이우진

오디세이에서 발견하게 된 나는 평소의 나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것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 책에 내가 생각한 말로 책을 써 내려간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다. 일반학교라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말을 만들어냈겠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써내려 간다. 오디세이에서는 내가 생각한 모습과 제3자의 눈으로 본 나의 모습을 들을 수 있다. 뜻밖이다.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 오디세이학교 1기 김예진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중 1학년 과정을 대안학교 등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지내는 1년제 학교이다. 공교육의 시간이 만족스럽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오디세이학교에서 1년을 지낸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된다. 이 별난 오디세이학교는 처음에는 방향의 학교였다. 2014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고등학생 진로캠프인 커리어 워크\*에 참가한 고등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반복과 경쟁이 아닌 무엇인가

---

\* 하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 고등학생 진로캠프로 해마다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다른 시간을 잠시라도 보내보았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에게 “1년 정도 방황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방황의 학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제안했다. 공교육의 시간을 잠시 흔들고 여백과 틈의 시간을 보장해주자는 의미였다. 방황의 학교는 인생학교로, 인생학교는 전환학교로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오디세이학교가 되었다. 이름의 변천 과정은 곧 오디세이학교가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자하는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기도 했다. 오디세이학교라는 1년의 시간에 대한 의미 말이다. 방황의 학교는 현재 경직되어 있는 공교육의 시간에서 보면 방황이지만, 오히려 자기 길을 제대로 찾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탈락했다. 다음으로 인생학교는 방황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잠재력과 행로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인생학교는 1년의 시간이 단지 1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체 삶을 흔들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인생학교는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학교 이름으로 더 열광하면서 탈락. 전환학교는 그 의미는 분명한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아예 전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름을 공모했는데, 오디세이학교가 선정되었다. 왜 이렇게 학교 이름을 짓는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가. 오디세이학교라는 작명 과정이 곧 이 별나 보이는 학교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 밖의 1년의 시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오디세이 학교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동안 공교육은 관할과 책임이 간단하고 분명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학적이 있으면 서울교육청 관할이고 학적이 없으면 서울시 관할이다. 그러나 좀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몸은 공교육에 있는데, 영혼은 탈탈학교이면 어디 관할인가? 공공과 탈탈이 각각 자기의 영역과 시간만을 고집할 수 없는 그 경계에서 오디세이학교는 출발했다. 1990년대 서태지의 아이들처럼 학교를 박차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미 영혼은 학교 밖으로 탈한 청소년들, 그들에게는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출발한 오디세이학교 1기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예상치 못한 시간과 만났다.

여행을 위한 프로젝트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엮어질 위기도 많았다. 또한 수학여행은 학교 수학여행과는 다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짜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더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시간에서 자신이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협의점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 오디세이학교 1기 김기영

오디세이학교라는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알겠지만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항해를 노래한 오디세이에서 가져온 것이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앞에는 여러 신들의 훼방이 놓여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식인 거인족을 만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도 한다. 요정 키르케의 마술에 걸려드는가 하면 난과와 풍랑으로 표류하는 것은 거의 일상이었다. 귀향의 항해이건만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고향인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타카 섬으로 돌아갔다. 오디세우스 앞을 가로 막았던 풍랑과 난관처럼 오디세이학교도 만만한 항해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노골적인 신들의 방해 따위는 있을 리 없으니, 오디세이학교를 선택하기만 하면 멋진 모험의 항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신들의 훼방 못지않은 위력적인 도전이 가로 막고 있었으니, 바로 불안이었다. 오디세이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1년 내내 자기 자신 안의 불안과 그리고 사회에서 던지는 질문들 속에 자리한 불안과 맞서 싸워야 했다. 1년 뒤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만큼 1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전환을 이루기에는 짧고 다시 돌아갔을 때 제자리로 적응하기에는 길어 보이는 시간이었다. 그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아이들은 1년을 보냈다. 첫

해 오디세이학교의 항해가 이루어진 교육현장은 공간민들레, 아름다운학교, 꿈틀학교였고 두 번째 해인 올해는 공간민들레, 하자센터, 꿈틀학교가 그 현장이 되었다. 오디세이학교가 학교로서 성공 사례냐 아니냐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오디세이학교의 아이들에게 오디세이학교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시간을 가져보는 경험이 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1년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의 시간인가에 대해 오디세이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격렬하게 몸으로 겪은 것이다. 현재도 오디세이학교 학생들의 항해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디세이학교를 선택한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옆을 돌아보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디세이학교의 시간들은 ‘수업형 공부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짜 공부시간’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첫째, 수업시간에 말이 늘었다. 처음에는 말도 잘 안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상관 없다”는 식의 답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도 많이 하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성의 있게(?) 답한다. 둘째, 생각을 한 번 더 한다. 처음에는 말을 할 때나 무언가를 할 때 생각을 잘 안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한다. 셋째, 아이들과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한 아이들 아니면 이야기도 잘 못 나누고 말도 잘 못 걸었는데 지금은 스스럼없이 다른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말도 잘 건다. 넷째, ‘동물로서의 인간학’ 시간에 더 열심히 듣는다. 1학기 때는 동물로서의 인간학 시간에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학기 들어서 동물로서의 인간학에 더 관심을 가지다 흥미가 생겼다. 다섯째, 남의 눈치나 주위 시선을 살피지 않는다. 처음에는 약간 남의 눈치를 살피고 주위 시선을 살폈다.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도 혹시 틀려서 아이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며 주위 시선을 살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눈치나 주위 시선을 살피지 않고 발표도 자신 있게 한다. 더 있지만 생략하겠다. 이렇듯 나에게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내가 오디세이학교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을 찾았을까? 나는 오디세이학교가 너무 고맙다. 길잡이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 오디세이학교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중에 복교했을 때 시간 나면 놀러가야지~

- 오디세이학교 1기 신승의

## Best One이 아니라 Good One

전환의 시간은 시간의 자급력을 확보하는 것,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쓰는 힘을 갖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전환의 시간은 내 시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나를 찾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묻지만 그 전에 “너는 무엇이니?”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의 주인공인 동구는 여자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이다. 좀 똥똥하기는 하지만 친구 엄마의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장만옥을 닮았다’고 생각하며 여자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동구가 성전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

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모은 돈은 동구의 아버지가 폭력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아버지의 합의금으로 허망하게 사라진다. 여자가 되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동구 앞에 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인천시장 배 고등부 씨름대회’가 나타난다. 동구는 이미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옷통부터 벗고 시작해야 하는 씨름이라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사인 동구의 아버지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는 동구를 이해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들다. 자신의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니, 동구의 아버지에게 여자가 되고 싶다는 동구의 꿈은 ‘꿈’이 아니라 ‘병’이다. 아버지의 난폭함에 질린 엄마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인지라 동구에게는 돌과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우리의 동구는 씨름대회에 나가 천하장사에 도전하기로 한다. 천하장사와 여자는 좀 안 어울리지만 일단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천하장사가 되는 길 외에 당장은 다른 묘책이 없다. 영화는 동구가 씨름선수가 되고 씨름대회에 나가 우승하기까지의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드디어 영화의 마지막에는 마돈나처럼 완벽한 여자가 된 동구가 등장한다. 해피엔딩. 이 영화는 동구의 성장기를 통해 동성애라는 민감한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성애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나를 찾는 것’에 대

한 이야기이다. 여자가 되기를 열렬히 원하는 동구를 보면서 친구가 ‘너는 못 생긴 여자가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못 생긴 여자가 얼마나 살기 힘든데 굳이 여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묻자 동구는 이렇게 대답한다. “알아. 분명히 난 아주 못생긴 여자가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라고. 이 대답은 동성애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구의 아버지와 달리 엄마는 동구를 이해하고 지지한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에서 엄마가 동구를 지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왜 당신이 싫은 줄 알아? 무엇보다도 가장 싫은 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너무 미워해. 그래서 난 정말 당신이 싫어. 근데 동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 난 그것에 감사해. 알아. 앞으로 동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될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지. 근데 나 결정했어. 그 싸움, 말리기보다 잘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로.”

교육의 시간이 그대로 미래를 보장해주던 시대는 지났다. 공부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명예와 부와 권력에 비례하는 시대도 아니다. 우리가 정해놓았던 혹은 옳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동구의 ‘꿈’을 ‘병’으로 보는 동구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치부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은 모두 자기 삶의 미래를 감당할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결국 옆의 친구를 벌레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의 시간은 자기를 발견해내는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 ‘망해도 괜찮은 다시마’ - 결국 공생의 시간

‘망해도 괜찮은 다시마’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망해도 좋다’고 느긋한데도 어쩐지 아주 잘 팔린단다. 이 특이한 다시마를 파는 사람들은 일본 ‘베텔의 집’ 사람들이다. 베텔의 집에는 귀신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혼자만 듣는 사람도 있다. 베텔의 집은 피해망상증, 조울증 등 정신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베텔의 집은 일본 홋카이도의 우라카와에 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가 1978년에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사사키 미노루 등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무카이야치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는 홋카이도 지역의 다시

미를 팔려 파는 사업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베텔의 집’과 ‘복지숍 베텔’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연간 매출액이 7,000만 엔(약 7억 9,000만 원)을 넘는단다. 이 정도 사회적기업을 이루려면 병도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일만 했을 것 같은데, 이들 사회적기업의 운영원리는 의외로 ‘열심히 하지 않기’, ‘중간에 그만둘 줄 아는 미덕’, ‘자신의 약점 드러내기’, ‘편견과 차별 대환영’, ‘안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인생’, ‘약점을 유대 기반으로’, ‘안심하고 농땡이 칠 수 있는 직장 만들기’ 등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회사 운영방식에 비추어보면 매우 생소하고, “망하려고 작정했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좀 달리 보면 내가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슬쩍 끼어서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끌림이 있다. 정신장애인 공동체라는 특성 때문에 베텔의 집에서는 시간이 좀 다르게 흐른다. ‘빨리 빨리’ 혹은 ‘정확하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텔의 집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기보다 약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었다. 베텔의 집 사람들은 “문제나 고생, 고민을 없애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서로 돌아가며 일하자”고 한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에게 “정신장애인 이란 속도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이다. 그는 베텔의 집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우리에게 “경쟁하지 않아도 행

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압박을, 주위의 시선을, 나 스스로의 기대를 떨쳐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2가지 환상,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돈 잘 버는 어른들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해왔다. 게다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간을 상품화하고 압축하고 왜곡하면서 시간체감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이 계속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 시간의 속도를, 압력을 혼자서 이겨내기는 힘들다. 결국은 ‘함께’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베델의 집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야말로 가장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병으로 여겨지고, 보통 격리를 치유과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델의 집 사람들은 놀랍게도 관계를 맺기 힘든 그들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역으로 놀라운 관계 맺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삶의 기쁨을 찾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먼저 속도와 경쟁으로 무장한 우리 사회 역시 이미 관계를 맺기 힘든 병에 걸려 있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베델의 집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정신, ‘약함을 드러내는’ 태도를 배우자. 홀로 있는 시간에서 나와서 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로의 감각을 깨우고 서로의 시간을 함께하자. 결국 전환의 시간은 공생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시간은 기적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Chapter 06

---

# 예술가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 이동연 ·

---





# 차이와 반복으로서의 예술 시간

## 창작인 동시에 노동의 시간

예술가에게 시간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어떤 작품을 창작하고 재현하고 재연하는 미적인 행위의 총체적 과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에게 시간은 창작의 시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을 쓰는 시간, 연주를 하는 시간, 그림을 그리는 시간 말이다. 그러한 시간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반대로 즐겁기도 하다. 창작은 고통의 과정이자, 희열의 순간이기도 하다.

## 차이와 반복으로서의 예술 시간

---

예술가에게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는 물리적 시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과학자에게 시간은 규칙적으로 분절되는 물리적 경과로서 인식된다. 시간은 정확한 시계로 측정해야 하는 실험의 시간, 관측의 시간이다. 과학자에게 1초는 물리적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면서, 실험과 증명을 위해 수없이 분절 가능한 시간이다. 과학자들에게 시간은 시계가 통제하는 대상이다. 반면 예술가에게 시간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대상이다. 같은 연주시간이라고 해도 예술가가 느끼는 시간의 감정은 관객들이 느끼는 시간의 감정과 다르다. 관객들도 같은 연주를 감상하더라도 감정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매우 빠르게 느낀다. 감동적인 연주를 감상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게 느껴지는 것은 연주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주자는 그런 점에서 무대의 공간이 아닌 무대의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 무대의 시간은 전적으로 예술가의 것이며, 예술가에 의해 지배된다. 예술가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시계가 아닌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술가들의 시간이 매우 특별하다고 말한다. 예술가들은 주로 남들이 지는 밤에 작업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습

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은 밤에 작업을 하고 낮에 잠을 잔다. 예술가는 창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시간전쟁과의 내막에 대해서는 독자나 관객들은 잘 알지 못한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만, 실제로 그 작품이 무대에서 연주되거나 전시회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관객들은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의 10여 분 남짓의 연주를 듣지만, 실제로 그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서기 위해 혼자 연습하는 시간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린다. 무대 안에서 재현된 시간과 무대 밖에서 연습한 시간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것이 결코 허망하지 않은 것은 무대의 시간이 주는 만족과 감동 때문이다. 단 몇 분을 연주하기 위해 투자된 수많은 시간은 예술가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예술적 경지에 오르기까지 예술가가 투여해야 하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지루하다.

예술가의 시간은 무대와 연습실을 벗어난 공간에서도 지속된다. 예술가들의 일상의 시간은 예술의 시간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예술가들도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일상의 시간을 보내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버는 생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가난한 청년예술가들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 공사판이나 식당에

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때의 시간은 단지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대에 서기 위한 일종의 창작 준비의 시간이다. 예술가의 시간이 창작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시간이기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하에서다.

### 예술의 시간에 나타나는 차이와 반복

---

예술의 시간은 차이와 반복의 연속이다. 연주자는 평생 동안 같은 곡을 무대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연주한다. 연습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같은 곡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은 연주자의 숙명이다. 판소리 명창들은 죽을 때까지 ‘춘향가’나 ‘심청가’의 대목들을 수천 번 부른다. 피리와 대금 연주자들은 연주곡목이 한정된 ‘영산회상’이나 ‘상령산’과 같은 정악곡을 수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연주자가 같은 곡을 수없이 반복해도 모든 연주가 동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모든 연주의 반복은 차이를 갖기 마련이다. 한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평생 동안 수백만 번 연주해도, 그날 연주자의 컨디션, 시간대, 장소, 관객들의 호응에 따라 연주는 모두 다르게 들린다. 모든 연주에 차이 없는 반복이 없고, 반복 없는 차이가 없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 Gilles Deleuze는 《차이와 반복 Différence et

Répétition》이란 저서에서 재현의 동일성을 비판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다. 반복은 동일성을 입증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성의 균열, 변환을 일으키는 개념이다. 반복을 통해 존재자의 동일성은 사라지고 고정된 정체성도 사라진다. 반복하는 주체는 항상 동일한 규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건들을 생성한다. 반복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기 위한 운동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의 힘으로써 반복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들뢰즈는 2가지 유형의 반복을 구별하고자 한다. 하나는 오직 추상적인 총체적 결과에만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작용 중인 원인에만 관련된다. 전자는 정태적인 반복이고 후자는 동태적인 반복이다. 들뢰즈는 후자의 반복 즉 동태적인 반복은 역동적인 질서를 생산하고 이러한 역동적인 질서 안에는 “더 이상 재현적인 성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창조적인 순수한 역동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반복의 개념을 음악의 박자와 리듬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박자-반복’과 ‘리듬-반복’을 구별하고자 한다. 박자-반복은 시간의 규칙적인 분할이며 동일한 요소들의 등시간적 회귀이다. 그러나 강세와 강도를 지닌 음가들의 집합체인 리듬-반복은 계량적으로 동등한 악절이나 음악적 여백들 안에서 어떤 비동등성과 통약불가능성들을 창조하

면서 작용한다. “그 음가들은 항상 다<sup>多</sup> 리듬을 가리키는 어떤 특이점, 특권적 순간들을 창조한다. 여기서도 여전히 동등하지 않은 것이 가장 실증적이다. 박자는 단지 리듬을 감싸는 봉투, 리듬들 간의 관계를 담고 있는 외피일 뿐이다. 동등하지 않은 점들, 굴절하지 않은 점들, 율동적인 사건들의 되풀이가 동질적이고 평범한 요소들의 재생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들뢰즈는 박자-반복은 리듬-반복의 걸모습이거나 추상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두 유형의 반복을 구별하는 기본 원리는 동일성을 생산하는 반복인가 아니면 차이를 생산하는 반복인가에 있다.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공간의 차이이다. 반복과 차이의 미학은 비단 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정한 조형적 경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미술가에게도 해당되고, 장르 영화를 고수하는 영화감독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특정한 작품을 보고, 특정한 경향과 유사성을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예술가들의 창작행위가 갖는 반복과 차이의 미학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과 차이의 미학이 생성되는 과정과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술가에게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가들의 시간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 일상과 연결된 동시에 분리된 예술가의 시간

미국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헬렌 룬드버그(Helen Lundeberg)의 〈시간 속 예술가의 이중의 초상(Double Portrait of the Artist in Time, 1935)〉은 예술가의 생애주기의 궤적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힌다. 그림에는 밝은 표정의 어린아이 초상과 성인이 된 여성의 초상이 함께 등장한다. 룬드버그 자신의 생애주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2개의 초상화는 평범한 어린아이에서 예술가로 성장한 작가의 자전적 형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술가의 시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예술가로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은 어린아이의 순간과 같을 것이며 만개한 꽃을 들고 있는 순간은 전성기를 구가하는 예술가의 순간과도 같다. 두 초상을 이어주는 그림자의 이미지는 예술가 생애주기의 ‘희노애락’을 함축한다.

유명한 예술가들의 생애주기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 예술계에 입문하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겪는다. 대체로 예술가의 영감과 능력은 후천적이기보다는 선천적이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술가로서의 잠재적 삶을 산다. 그러나 생애주기로서 예술가의 관점이 예술가의 시간을 처음부터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로 인정

을 받고, 성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생애주기 과정에는 많은 변화와 선택의 계기들이 있으며, 이 전환과 이행의 시간에 예술가가 어떻게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가 예술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결정한다.

관객과 독자들이 예술가를 사랑하더라도 그들의 생애주기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대중들은 단지 창작의 결과물을 통해서만 예술가들을 만날 뿐이다. 예술가가 어디서 태어났고, 유년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무대와 갤러리가 아닌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들은 대부분 무대 위의 예술가, 전시를 열고 있는 예술가, 새로운 시와 소설을 쓴 예술가의 일부 생애주기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창작물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투여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예술적 잠재성을 아는 순간, 예술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투여되는 무대 밖, 미술관 밖의 시간들, 예술계의 스승과 선배, 후배들과 보내는 시간,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일상의 시간, 이 모든 생애주기의 시간들은 예술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의 생애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다. 무대와 격리

된 예술가의 일상은 사실 매우 우울하며 불안정하다.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예술가들이 일상에서 벌이는 투쟁 속에는 심리적 반응들이 많이 나타난다. 창작의 고통은 신경증, 히스테리, 조울증, 혹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예술가의 광기 혹은 불안 심리는 예술가에게는 운명적인 것이다. 예술가의 생애주기가 일반인들보다 순탄하지 않은 것은 창작을 위한 내적 투쟁이 격렬하기 때문이다. 극적인 변화와 전환의 강도가 강한 예술가들의 생애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작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어떻게 연결되고 단절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예술가의 생애주기의 연속과 단절의 시간을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도 바로 예술가의 생애주기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 득음, 혹은 에피파니의 시간

### 음악의 이치를 깨닫는 고통의 순간, 득음

우리 시대 최고의 명창 안숙선은 9살에 판소리계에 입문했다. 안숙선 명창을 가르친 스승은 당시 최고 명창의 반열에 올랐던 김소희와 성우향이다. 안숙선은 박귀희 명창에게 가야금 병창을, 친이모인 강순영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웠다. 1979년 국립창극단에 들어가서 곧바로 창극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고, 관객들로부터 ‘영원한 춘향’이라는 호칭을 받기까지, 40대 중반 가야금 병창 부문 예능보유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국립국악원 창극단 예술감

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거쳐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칭송받기까지, 안숙선의 소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굴곡 없이 최고의 순간만을 살아온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안숙선은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판소리꾼으로서 세상에 인정받기까지 스스로 소리의 발성과 표현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예술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판소리에서는 이것을 득음(得音)이라고 한다. 안숙선은 김소희 명창을 통해서 득음의 과정을 수련받았는데, 젊은 시절 동굴에 열흘간 들어가 밖에서 전달해주는 음식만 먹으며 득음을 위한 수련을 했다고 한다.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열흘이 지난 줄 알고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스승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다시 동굴 속으로 집어넣어 수련을 시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판소리에서 득음은 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음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판소리가 대학교육으로 정착되기 전에는 많은 판소리꾼들은 득음을 하기 위해 산 속 동굴이나 폭포수 앞에 움막을 차려놓고 이른바 ‘산공부’를 했다. 며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상청에서 하청까지 소

리를 해 목이 쉬고 성대가 결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성대가 결절된 상태에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되면, 목에서 피가 나는데, 이 상태에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잠겼던 목이 풀리고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득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득음은 어디까지나 소리의 기교와 형식을 완성하는 수준에 그친다. 진정한 득음은 고음과 저음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교의 단계를 넘어 소리의 감성과 느낌을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판소리의 성음 체계는 형식적인 기술의 체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판소리의 성음 형식은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을 잘 수반해야 한다. 미성의 높은 고음은 애절한 감성을, 탁성으로 내지르는 고음은 분노와 격정의 감성을, 느린 저음은 한의 정서를, 빠른 저음은 당당함을 표현한다. 판소리의 목과 성은 판소리의 성악적 요소만이 아닌 연극적 요소들을 표현하며, 청자가 표현하는 감정의

---

\* 판소리의 목과 성(聲)은 판소리에서 부르는 이의 음질(音質), 창법 및 가락형에 따라 무슨 목, 무슨 성하고 이름 지어 부른다. 대개 목은 가락형과 창법에 관계가 깊고, 성은 음질과 관계가 깊다. 노랑목: 가볍게 발성하고 가락에 물을 들인다 하여 여러 가지 장식적인 맛을 들이는 것으로, 육자배기와 같은 가락장식이나 창법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명창들은 이를 꺼려하고 있다. 외가집목: 어느 조에서 그 조의 일반적인 구성음이 아닌 음이 쓰이거나 일시적인 변청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수리성: 좀 꺾꺾하고 원 듯해 설득력이 강한 명창의 음질. 송만갑, 정정렬이 수리성이었다. 쇠옥성: 금이나 옥을 굴리는 듯 맑은 소리를 말한다.

깊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판소리는 단지 노래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발림’, ‘아니리’, ‘추임새’와 같은 연극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 판소리가 현대에 들어와 1인 음악극으로 각광받는 것은 판소리의 극적 양식의 특성 때문이다. 판소리꾼에게 있어 진정한 득음은 소리의 기교만이 아닌, 소리꾼이 특정한 대목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심금을 울리는 소리의 진실을 깨닫는 데에서 온다. 젊은 판소리꾼이 소리의 기교 차원에서 득음을 할 수는 있어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 소리의 감성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소리의 형식과 내용, 표현과 실체가 모두 결합될 때, 판소리꾼의 득음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 창작의 영감을 얻는 깨달음의 시간, 에피파니

서양예술에도 판소리의 득음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 비록 음악에 한정되는 말은 아니지만, 득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서양 예술의 개념은 아마도 ‘에피파니<sup>epiphany</sup>’가 아닐까 싶다. 에피파니는 한국어로 강림, 현시, 깨달음으로 번역할 수 있다. 원래 에피파니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공현대축일’로서, 예수가 탄생하고 난 후 12일이 지난 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러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날을 말한다.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보러온 날, 그 순간은 '성삼위일체'라는, 기독교 교리로 보면 메시아가 강림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에피파니가 성령강림이란 의미를 갖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이 에피파니는 철학적·종교적 일반론으로 보면 삶의 깨달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술가들에게 에피파니는 창작의 영감을 얻는 순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예술적 경지에 오른 순간을 말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으로서 에피파니는 앞서 말한 판소리의 득음과도 같은 의미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의 자전적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작가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조이스에게 에피파니는 경험의 본질 혹은 실체가 한순간에 완전히 이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에피파니의 순간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디덜러스의 에피파니의 순간이 여러 번 등장한다. 신부가 되길 원했던 디덜러스는 어느 날 한 신부의 모습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체험하게 된다. 늦은 오후 창을 등지고 서있는 신부의 모습에서 디

덜러스는 어두운 빛 안에 갇힌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다. 신부의 깊게 패인 관자놀이와 강렬하게 비치는 오후의 햇살로 인해 신부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두개골의 모습으로 보인다. 빛을 차단하는 신부는 마치 구원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보이고, 얼굴의 짙은 명암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은 디덜러스는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종교적 구원과의 단절을 결심한다. 우연히 신부가 서있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의 좌표가 순식간에 그려지는 순간이 바로 에피파니의 순간이다.

신부가 되기를 포기한 디덜러스는 예술가의 길을 모색하던 중, 바닷가에 서있는 한 소녀의 모습에서 새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새의 이미지를 연상케 했던 소녀를 통해서 디덜러스는 예술적 영감과 미적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된다. 심미안이 열리고 미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녀의 이미지가 그의 영혼으로 영원히 들어왔고, 어떤 말로도 그가 느끼는 황홀경의 거룩한 침묵을 깨뜨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불렀고, 그의 영혼은 그의 부름에 날뛰었다. 살고, 실수하고, 타락하고, 승리하고, 삶으로부터 삶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야성의 천사가,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닌 천사가 삶의 아름다운 궁정에서 보내온 사절이 그에게 나타나, 황홀의 순간에 모든 과오와 영광의 길로 이르는 문들을 그에게 열어젖혀 보여준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이 진정한 예술가로 존재함을 깨닫고, 자기가 염원하는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연민의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그 순간을 깨닫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측정 이 불가능한 찰나의 순간이다. 예술가에게 시간은 이러한 찰나의 시간을 체험하기 위해 반복된 연습에 정진하는 시간이다.

예술가의 에피파니는 물질로 보상할 수 없고, 동일하게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시간이다. 그것은 자신이 예술가로 깨닫는 시간, 창작과 재현행위를 통해서 예술적 삶의 도약을 깨닫는 시간, 수많은 창작의 시간에서 근본적인 단절과 회열을 느끼는 시간이다. 에피파니의 시간은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으며, 있더라도 전 생애에서 한두 번 밖에 경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종교 지도자가 구도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에피파니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행위의 존재 근거를 찾는 순간이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자신이 내재된 미적 가치를 확신하

는 순간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에게 특음과 에피파니의 시간은  
예술적 시간의 특별함을 알게 해준다.



## 창작의 시간인가, 노동의 시간인가

### 노동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창작의 시간

2015년 12월부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의 <모네, 빛을 그리다>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모네는 인상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다. 인상주의는 그가 그린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에서 나온 말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파리지만, 소년 시절을 영국 해협에 근접한 항구도시인 르아브르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외젠 부댕Eugène Boudin을 만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네델란드 풍경화가인 바

르톨트 용킨트(Johan Barthold Jongkind)를 알게 되면서 빛을 그림에 포착하는 기법을 알게 되었다.

모네의 그림 인생은 거의 ‘빛과 색채’와의 싸움이었다. 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이 동일한 장소를 어떤 풍경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수많은 연작물을 그렸다. <건초더미>, <포플러 나무>, <루앙 대성당>, <수련> 등이 대표적인 연작 작품이다. 그 중에서 그가 말년에 그린 <수련> 연작은 빛과 색채에 따른 오묘한 풍경의 변화를 가장 아름답게 그렸다.

모네는 화가로 성공하며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자, 1893년 파리 서쪽 근교에 위치한 지베르니로 이사했다. 그는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넓은 대지를 구매하여 연못을 만들고 일본식 다리를 놓고 수련을 심었다. 그리고 정원에 앉아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같은 대상을 캔버스를 바꿔가면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기른 수련을 주제로 30년 동안 200여 작품을 그렸다. 하루 종일 빛의 변화에 따라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쉴 틈도 없이 캔버스 앞에 매달려 있어야 했고, 야외 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시력이 크게 나빠졌다. 그래서 말년에 백내장을 앓아 시력이 거의 손상되었지만, 모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1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한 수련 연작은 생전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죽

은 지 26년 만에 세상에 공개되면서 오늘날까지 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전 세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죽기까지 수년간 매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그린 수련 연작은 창작의 산물일까, 아니면 노동의 산물일까?

모네의 수련 연작과 같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창작행위들은 노동의 시간과 분리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비단 수련 연작만이 아니라 대하소설을 집필하거나, 오랜 시간을 통해 조각상이나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거나, 대형 무대를 제작하여 공연을 해야 하는 등 장시간 고된 노동시간이 필요로 하는 창작활동은 창작에 필요한 노동의 시간을 빼놓고 예술이라 말할 수 없다. 창작물은 예술가가 일한 물리적인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완성된다. 물론 예술가에게 창작의 시간이 따로 있고, 노동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작의 시간이 곧 노동의 시간이고, 노동의 시간이 곧 창작의 시간이다. 그래서 창작의 시간은 가치 있고, 노동의 시간은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창작의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은 노동의 시간을 전제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예술가에게 노동의 시간이 가치 있는 것은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 때문이다.

## 예술가의 노동시간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

---

예술인에게 있어 노동은 창작과 분리될 수 없으며, 창작 역시 노동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 ‘예술-노동’은 창작을 노동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과 창작을 노동과 동일시하려는 생각에 맞서 새로운 상상력을 요한다. 창작은 노동의 한 형태이면서, 노동일반으로 환원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으로서 창작은 창작의 행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창작자가 창작에 쏟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총량과 질을 객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창작으로서 노동은 노동의 특수한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로서, 육체적·정신적 노동일반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이다. 따라서 ‘예술-노동’은 노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노동의 특수한 행위로서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술은 노동의 가치를 재현할 뿐 아니라, 노동의 특수한 행위로 독립적, 자율적, 미적 가치를 갖는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라.

우리는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술과 노동이란 적대적 활동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노동에서 창조적 성격을 보지 못하고(칸트에 의하면 강요된 환금적 활

동이라고 됨), 그러므로 그것을 자유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켜 놓고 있는 데서 유래한 생각이거나, 노동을 단순히 경제학적인 한 범주로 축소시켜 놓음으로써 노동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본질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데서 연유된 생각인 것이다. (중략) 예술이란 노동의 적극적인 측면을 연장시킴으로써, 인간의 창조적 역량을 드러내 보여주는 활동이라는 생각은 예술을 어떤 특수한 이즘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의 경계를 무한히 연장케 하는 일을 허용해준다. 예술작품은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수행했던 것과 같은 실로 다양한 기능들—이데올로기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 표현적 기능, 인식적 기능, 장식적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은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대상으로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 내적 현실이건 외적 현실이건 예술작품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창조물이요 새로운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란 인간의 노동에 의하여 이미 인간화된 현실을 그의 창조로서 확대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앙리 아르봉(Henri Arvon)의 이러한 언급은 예술과 노동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한다. 예술은 노동의 창조적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생산의 행위 조건이 된다. 노동 없는 예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노동의 창조적 행위로서 예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소외와 대립한다. 맑스는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상품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했다. “노동자는 상품으로 그것도 가장 빈곤한 상품으로 전락”했고, “노동자의 빈곤은 노동자에 의한 생산의 권력 및 그 규모와 전도된 관계에 있다.” 이러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경쟁의 필연적 결과는 “소수의 수중에 이루어지는 자본의 축적, 곧 보다 가공스러운 독점의 회복이다.” 또한 “자본가와 지대 징수자의 구별, 농부와 수공업 노동자의 구분은 사라지고 전 사회는 소유자와 무산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맑스는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소외가 가장 본질적으로 수렴되는 방식이 “화폐의 체계로 인한 전반적인 소외”라고 말하는데, 화폐의 체계는 노동과 노동자의 분리, 즉 노동 소외를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착취 체제이다. 화폐 체계 하에서 노동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궁핍을 생산한다. 노동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지옥을 생산한다. 노동은 미를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

는 기형성을 생산한다. 노동은 기계를 통해 노동을 보충하지만, 그 반면에 일부의 노동자들을 야만적인 노동으로 몰고 가며, 또 다른 일부의 노동자들을 기계로 만든다. 노동은 정신을 생산하지 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곧 백지상태를 생산한다.

맑스는 소외를 생산의 관계로 파악한다. “만일 우리가 노동의 본질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생산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맑스는 노동의 소외는 생산의 결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행위, 즉 생산하는 활동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맑스는 이것을 “외적인 노동”, “인간을 외화시키는 노동”으로 파악한다. “외적인 노동 곧 인간을 외화시키는 노동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노동이자 금욕의 노동이다. 결국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외적 성격은 노동이 자기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타자의 노동이라는 것, 노동이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타자에게 속하는 노동자의 노동은 소외를 야기한다. 소외는 노동을 자신의 삶을 위한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 데서 비롯하는데,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 후반부에서 이러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즐겁고 자유로운 활동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맑스는 “즐겁고 충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의 노동”이 노동조직의 근거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문장이 예술노동의 의미를 간파하게 해준다.

“즐겁고 충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노동”이란 개념은 예술노동이 감성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성적 활동으로서 예술노동은 창작의 행위와 권리를 의미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예술노동은 노동행위의 사회적 보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자가 노동의 감성적 특수성을 말한 것이라면, 후자는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말한 것이다. 예술노동은 노동행위의 특수성과 예술행위의 노동의 일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노동행위는 노동일반과 다른 특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만이 아닌 특수한 복지의 의미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수한 복지는 예술가들의 특별한 노동행위에서 비롯된다. 예술가들의 특별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이 특별한 정신과 감정의 가치를 자신이 노동행위를 통해서

---

\* “노동은 우선 즐겁고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직이 그 역으로 즐거운 활동으로서의 노동의 근거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활동으로서의 노동개념은 전적으로 충분한 것이다”(223).

사회적으로 구현한다는 점과, 노동의 고용형태가 일반노동과는 다르다는 점, 이 2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예술가들의 노동은 제품을 만들거나 공공서비스를 하는 노동과는 다르게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미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예술의 미적 가치의 생산은 재화와 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에서의 노동은 일반노동과는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가들의 모든 예술행위는 누구로부터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고용된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은 1인 자영업의 형태와 유사하며, 따라서 고용자로부터 노동에 따른 복지의 혜택을 요구할 수 없어도 스스로 고용된 자로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술가로서의 특수한 복지이다. 예술가로서 특수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노동의 시간이 갖는 특별한 미적 가치 때문이다.

# 예술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드러난 시간의 층위

예술가에게 시간은 '기억의 미학화'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자전적인 작품을 많이 생산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예술가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 만난 사람들, 장소들, 물건들이 모두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나 소재, 혹은 주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에게 기억은 매우 중요한 창작의 자원이 된다. 이미 지나온 기억으로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전망으로서 시간은 예술가에게 중요하다. 자전적 의미에서 창작의 소재가 되는

것은 장소, 음식, 사람 등이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말하자면 기억과 향수, 전망과 비전이란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된다. 지금 당장은 창작의 소재로서 의미 없는 시간, 혹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몇 년, 몇 십 년이 지나면 기억의 장소에 저장된 과거의 체험들은 중요한 미적 통찰이 될 수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는 시간과 기억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정한 예술가 중의 한 명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38세 때부터 썼는데, 거의 자전적 소설에 가깝다. 프루스트는 어렸을 때 천식을 앓아 고생했다. 천식은 난치병으로 판정을 받았고 결국 죽을 때도 폐렴으로 죽었다. 체력이 약하다 보니 마음도 심약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909년에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13년 동안 총 일곱 권의 연작을 썼다. 5권까지는 그가 죽기 전에 발표되었고, 마지막 6, 7권은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출간이 되었다. 프루스트의 집안은 고관대작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좋은 집안에 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귀족 사교계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책에 등장하는 콩브레리는 지역은 프루스트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숙모네 집에 살았던 일리에라는 지역을 대체한 것이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특히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과 회상이 현재의 시점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등

장인물의 감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중시한다. 들뢰즈는 자신의 저서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회상되는 다양한 사건들과 배경들을 크게 4가지 기호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사교계의 기호’, ‘사랑의 기호’, ‘감각의 기호’, 그리고 ‘예술의 기호’이다. 들뢰즈는 앞서 말한 3개 기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지막 예술의 기호는 별도로 설명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자아정체성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찾는 과정인데, 이 본질을 찾는 과정이 곧 사고, 사랑, 감각, 예술 4가지 층위의 기호로 대입된다. 들뢰즈가 말하는 4가지 기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한 후에 예술의 기호라는 것이 예술가에게 어떤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기억이나 추억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본질적인 것은 마들렌 과자나 포석들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물질에 대한 기억 그 자체보다는 기억된 물질 그 자체를 더 중시한다. 기억이 찾기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아니다. 들뢰즈가 강조하는 것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된 물질적 펼침이다. 들뢰즈가 보기에 지난 시간은 시간의 한 구조로서 작용하지만, 그것이 가장 근

본적인 구조는 아니다. 프루스트에게서 마르탱빌르의 종탑이나 뱅퇴이유의 소악절은 어떤 추억도 어떤 과거의 소생도 일어나게 하지 않지만, 이것들이 언제나 마를렌 과자나 베니스의 포석들보다 우월한 것은 마들렌과 포석들은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물질적 펼침'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 책은 그러한 물질적 펼침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배움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이 책은 어떤 배움의 이야기이다. 더 정확히는 한 작가의 배움의 과정의 이야기이다. 배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호들과 관계한다. 기호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배워나가는 대상이지 추상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선 어떤 물질, 어떤 대상, 어떤 존재를 마치 그것들이 해독하고 해설해야 할 기호들을 방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메제글리즈 쪽과 게르망트 쪽은 추억의 원천들이라기보다는 배움의 원료들이자 배움의 선들이다. 그것은 수련의 두 측면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어떤 순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 그는 나중에야 그것에 대해 배우게 되며 또 주인공은 어떤 잘못된 생각, 헛된 기대 속에 있지만 마침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실망과 깨달음의 운동이 생겨나며 이는 찾기 전체에 리듬을 불어넣어준다. 배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호들과 관계한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기호들을 배워 나가는 과정 위에 놓여 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우리는 예술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기억의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사교계의 기호이다. 사교계의 기호는 정말로 동질적이지 않다. 그것은 어떤 동일한 순간에도 계급뿐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적 혈족을 따라서 서로 차별화된다. 이 책에는 ‘스완’, ‘게르망트’, ‘마르셀’, 이렇게 세 가문이 등장한다. 게르망트는 봉건적 귀족 가문을 나타내고, 스완은 그 아버지가 공인회계여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금융을 다루는 부르주아 가문을 나타낸다. 스완은 굉장히 많은 사교계 사람들과 사귄다. 그들의 성적인 취향도 매우 다양하고 예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사교계의 기호들은 변화하고 응결되거나 다른 기호들과 대체된다. 사교계의 기호는 어떤 행위나 생각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어떤 것, 즉 외재적 의미나 관념적 내용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들의 취향, 문화자본들을 드러내는 담론들로 가득하다.

두 번째 잃어버린 시간은 사랑의 기호이다. 《소돔과 고모라》편에서 등장하는 샤를뤼스와 쥐피앙의 만남은 독자들을 가장 놀

라운 사랑의 기호로 끌어들인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거나 방출하는 기호들을 통해 가능하다. 즉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 기호들에 민감해지는 것이며 이 기호들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도 다르며 기호도 다르다. 사랑은 무언의 해석에서 태어나고 자라난다. 사랑받는 존재는 하나의 기호, 하나의 영혼으로 나타나며 이 존재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능 세계를 표현한다. 우리는 애인 속에 있는 미지의 세계들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상대가 내뿜는 기호들을 해석해 낼 재간이 없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그저 다른 것들 사이에 섞여 있는 한 대상일 뿐이다. 애인은 우리에게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기호들을 보내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호들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세계들을 표현하는 기호들이기도 하다.

세 번째 잃어버린 시간은 감각의 기호이다. 감각의 기호는 물질적이기보다는 비물질적이다. 이 소설에서 프루스트가 말하려는 것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기억이 현재 그 대상을 경험할 때,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있다. 감각은 사진 속에 놓인 물질의 표면효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름달, 반달, 초생달을 그렇게 인지하는 것은 달의 물질성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달의 표면이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이란 사건의 배치 속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마들렌, 종탑, 나무들, 포석, 풀 먹인 냉킨의 뽀뽀함, 숟가락 소리, 물소리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는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의 형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감각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마들렌의 맛, 종탑의 소리, 포석의 촉각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 분명해지고 그 대상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그러자,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이 맛, 그것은 콩브레 시절의 주일날 아침(그날은 언제나 미사 시간 전에는 외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레오니 고모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갈 때, 고모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 꽃을 달인 물에 담근 후 내게 주던 그 마들렌의 작은 조각의 맛이였다. 여태까지 프티트 마들렌을 보고도 실제로 맛보았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회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유는 아마 그 후 과자 가게의 선반에서 몇 번이나 보고도 먹어 보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 심상이 콩브레 시절의 나날과 떨어져, 보다 가까운 다른 나날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물의 형태 또한—근엄하고도 숫저운 스커트 주름에 싸여 그토록 풍만하고 육감적인 과자의 작은 조각비 같은 모양도—없어지거나 잠들어 버리게 하여 의식에 또다시 결부될 만한 팽창력을

있고 만 것이다. 그러나 옛 과거에서 인간의 사망 후 사물의 파멸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홀로 냄새와 맛만은 보다 연약하게, 그만큼 보다 뿌리 깊게, 무형으로 집요하게, 충실하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넘쳐넘 남아 있어, 추억의 거대한 건축을, 다른 온갖 것의 폐허 위에 환기하며, 기대하며, 희망하며, 거의 축지되지 않는 냄새와 맛의 이슬방울 위에 꽃꽂이 버티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 1초의 머무름 없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 단순히 물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얽혀 있는 과거를 기억해낸다는 점에서 명령을 전해준다는 것은 대상의 감각, 즉 감각으로 기억된 대상의 기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를 찾기 위한 사유 작업이 지나가면 숨겨진 대상에서 기호의 의미가 나타난다. 그것은 마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 과자가 콩브레를, 종탑들이 소녀들을, 포석들이 베니스를 연상케 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 잃어버린 시간은 예술의 기호이다. 들뢰즈는 프루스트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분석하면서 예술의 기호가 가장 궁극적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나머지 3개의 기호들은 다 물질적인데 예술의 기호는 비물질적이기 때문이다. 들뢰즈 예술이론에서 비물질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예술의 비물질성은 악기

라는 물질성, 악보라는 물질성, 캔버스라는 물질성에 미적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의 의미는 악기라는 물질성 그 자체가 아닌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사운드의 감각에서, 캔버스와 물감의 물질성 그 자체가 아닌 캔버스에 그려진 형상의 감각에서 나온다. 들뢰즈는 이러한 예술의 기호를 사건의 표면효과로 설명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예술의 기호만이 비물질적이라고 말하면서 뱅퇴이유의 소악절을 언급한다. 뱅퇴이유의 소악절은 물질적인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온다. 악절은 아마도 물질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비슷한 다섯 음 가운데 2개가 다시 반복된다는 식 말이다.

음악에서 2도나 3도나, 장조나 단조나 하는, 악보 상으로 존재하는 음표들은 예술의 기호와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악보에 그려진 음표를 기초로 어떤 미적 감각을 생산하는가에 있다. 바이올린이라는 물질과 악보라는 물질은 그 자체로 예술의 감각을 생산하지 못한다. 예술의 감각은 그러한 물질을 기초로 어떻게 연주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연주자와 작가의 예술적 재현행위는 물질의 표면에 하나의 효과를 생산하는 것, 즉 연주행위를 통해 감각의 사건들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는 예술의 창작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온다. 그러한 행위의 실체로서 예술의 기호는 사교의 기호, 사랑

의 기호, 감각의 기호를 활용한다. 예술의 기호는 잃어버린 사고계의 시간, 사랑의 시간, 감각의 시간을 회상하게 만들며, 의미 있게 만들고, 사건을 일으키는 잠재성을 갖는다.



#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조건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예술가의 시간

지금까지 예술가에게 시간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다섯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했다. 대중이 생각하는 예술가의 시간이란 주로 창작하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 창작의 시간 역시 무대와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 외에 창작에 필요한 연습의 시간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예술가가 보내는 일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말을 하더라도 창작의 시간과 분리해서 말하거나 그것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술가 역시 일반인들처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랑을 하고, 나이를 먹는다. 예술가들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창작의 시간으로만 존재하는 인간, 무대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으로 간주하게 된다.

서울에 사는 예술가는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필자의 제자 중에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여학생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생들이 만든 극단의 배우로 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극 활동으로 얻는 수익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새벽에 영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면서 배우 활동을 지속했다.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기에는 넉넉지가 않았고 몸은 몸대로 피곤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극단 단원들과 상의 끝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했고, 지금은 의정부를 거쳐 강원도 화천에서 터를 잡고 꽤 오랫동안 극단 단원 전원이 생활하고 있다. 물론 버는 돈은 서울에 비해서는 적지만, 쓰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건강도 회복되고 말이다. 이후 결혼을 한 학생은 여전히 강원도 화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 예는 예술가가 서울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모든 예술가

가 생계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떠나 시골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형 예술인 희망플랜〉이란 연구를 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2015년 11월 23일~12월 7일)를 벌인 적이 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신청자 3,200명 중 430명이 응답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경력 증명 시스템에 가입한 예술가는 두 명 중 한 명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4퍼센트였다. 이중 예술인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절반 넘게 차지했다.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는 방법은 아르바이트가 51퍼센트를 차지했고, 고용형태는 84.6퍼센트가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였다.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상에서 대부분 임금체불, 노동시간 미준수 등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부당행위를 알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40퍼센트나 되었다. 창작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은 37.2퍼센트, 월세 임대료를 내는 경우가 64.2퍼센트나 된다.

이렇듯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비싼 생활비와 주택비용,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으로 고된 노동으로 일상이 힘든 시간을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오히려 창작환경이나 문화예술 인프라의

부족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 활동 예술가들이, 생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의 예술가보다 나은 편이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제주도를 포함해 생태적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일컬어 소위 ‘문화귀촌’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예술가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서울의 예술가를 위한 10가지 희망플랜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인 공공임태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예술인 생활환경 개선’과 예술인의 수익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예술인 생활안정망 구축’ 정책이 있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일자리를 늘려 노동권을 보장하고, 청년예술가를 포함한 예술가들에게 활동 기회를 만드는 예술시장을 구축하고, 연령·세대·장애 등 예술인들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창작 및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국제 교류의 기회를 늘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참여하는 협력적 사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면서 공간을 보존하는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예술인 희망플랜이 구체화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보내는 시간의 양태도

많이 바뀔 것이다.

예술가의 시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연주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습작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시간은 물리적 시계의 시간, 잠재적 축적의 시간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예술적 행위를 깨닫고 만족하는 순간의 시간, 즉 찰나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예술가로 동일시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한 찰나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예술가에게 고통의 시간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노동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습하고,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야 하는 노동의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해 불가능하다.

예술가의 시간은 특별하지만, 보편적이기도 하다. 특별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시간만 논한다면 예술가의 특수한 창작행위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반대로 보편적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이 특수한 시간만 논한다는 것도 예술가의 일상의 시간을 망각하게 한다.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예술가의 시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예술가를 위한 시간, 예술가에 대한 시간, 예술가에 의한 시간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첫 출발점이다.

## 이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줄 때

이 책에서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부터 일상생활, 노동, 교육, 돌봄,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다. 서울 시민들의 시간조직과 사용, 시간규범, 그리고 시간빈곤과 갈등의 근원들을 밝혔고, 결국 시간의 주체가 되지 못함으로써 열악해지는 삶의 현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시간정책의 방향과 시론적인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제언들이 앞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내용을 채우고 다듬어야 할 다른 과제를 안고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서울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해 9월의

포럼에서 발표가 끝난 후 가진 청중과의 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서울시가 도시정책의 주요한 내용으로 시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한 시민은 서울시민의 노동시간이건 여가시간이건 시민이 소비하는 시간의 양 못지않게 귀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시간 소비의 질’이라고 단언했다. 시간 소비의 질을 갖추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과연 어떤 공간 환경이나 공간 조직에서 시간을 소비하느냐’라는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이 포럼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다뤄졌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런 지적은 이 책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며, 시간정책을 기획할 때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제언이다.

시간정책을 기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은 부문별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의 정책들이 교차되고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시간을 살고 있는가가 현재 나의 건강을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이란 사람이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합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장시간 노동은 건강에 위험을 주고 야간근로는 암을 유

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수면시간이 너무 적어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근로, 노동, 작업환경이 함께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일정 수준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동의 시간, 수면과 생활의 시간, 여가, 교제, 봉사 등으로 시간이 분류되어 있는데,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시민 전체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관계 속에서의 신뢰, 지지, 네트워크, 협력 등을 강하게 구축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확보가 되고 건강의 역량이 확대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정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민은 시간의 정책에서 정책의 시간이라는 역발상에 대해 언급했다. 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다림과 성찰의 시간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과연 그간의 정책들이 이런 자세에 대해 고민이나 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논평을 그대로 옮겨보자.

서울시민의 삶을 논의하는 시간의 정책에서 시간이 정책으로 피드백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찰이 없는 정책이 무슨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된 미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야기할 때, 단지 달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것에 대한 시간의 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책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누가 과연 주인이고 누가 이후의 사업과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누구도 사람을 키우고, 오래 기다려주는 정책을 하지 않고 성과만 내는 정책으로 모두 소진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여러 필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시간정책 혹은 시간의 정치는 현재 시민들의 일, 가족생활, 여가시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쟁, 소비, 압박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잃게 된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찾아줄 수 있는 서울시의 시간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물론 이 모든 정책은 앞서 시민들이 제시한 시간정책의 철학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1장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 주은선·김영미, 2012,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34: 237-289.
- 김경희·김민희, 2010, 「입법과정에 나타난 일-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2000~2006년 국회의원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담론 201》 13(4): 71-101.
- 김영선, 2013, 『과로사회』, 이매진.
- 노광표·이문호·이정봉, 2013,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울산광역시 북구청.
- 노동시간센터, 2015,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코난북스.
- 신경아, 2015,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의 조직 내 주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1(2): 131-179.
- 안정옥, 2006, 「시간준거, 문화생태와 가족체제」, 《한국사회학》 40(6): 56-91.
- 조주은, 2008, 「압축적 시간성을 통한 '바쁨': 서울지역 중간계급 유배우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3): 211-242.
- 바바라 아담, 박형신·정수남 옮김, 2009, 『타임워치: 시간의 사회적 분석』, 일신사.
- Bryson, V., 2007, "Gender and the Politics of Time: Feminist Theory and Contemporary Debates", Bristol: The Policy Press.
- Dorre, K., 2011, "Capitalism, Landnahme and Social Time Regimes: An

Outline”, *Time and Society* 20(1): 69-93.

- Elias, N., 1992, “Time: An Essay”, Oxford: Blackwell.
- Hochschild, A., 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Henry Holt & Company.
- 레온 크라이즈먼, 한상진 옮김, 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 로버트 레빈, 이상돈 옮김, 1997,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황금가지.
- 브리짓 슐트, 안진이 옮김, 2015, 『타임푸어』, 더퀘스트.
- Tabboni, S., 2001, “Norbert Elias”, *Time and Society* 10(1): 5-27.
- Thompson, E. P.,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1): 56-97.
- Zerubavel, E., 1982, “The Standardization of Time: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1): 1-23.

## 2장 서울의 24시간을 해부하다

---

- Thompson, E. P.,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1): 56-97.
- Moore, Wilbert Ellis, 1951, “Industrialization and labor: Social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Ithaca: Institute of World Affairs.
- <https://libcom.org/files/timeworkandindustrialcapitalism.pdf>.

## 3장 시간의 정치가 필요한 시간

---

- 이상현, 2015,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생각의 힘.
- 김종진·윤자호·박기산, 2015, 『2015 보건의료노동자 임금, 노동조건, 노동환경 실태조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김종진·김현주·김보성·이진우·서수민, 2015,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

자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희망제작소, 2016,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자료집(2016.2.24), 희망제작소.
- 권태희, 2014, 『소득과 시간 빈곤 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정책 수립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김종진, 2015, 「서울시 일자리 만들기, 괜찮은 노동시간과 고용의 질 개선 방향 모색」,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 방안 토론회,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ILO, 2007, Decent Working Time, ILO.

#### 4장 엄마의 시간은 어디에, 돌봄 노동

---

- 문경란, 2016, “가스레인지 앞 그대를 위하여”, 《시사인》 제470호.
- 서울특별시, 2015, “통계로 본 서울여성의 삶”, 《E-서울통계》 제97호.
- 서울연구원, 2015, 「민선 6기 서울시정 전반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연구원.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4, “Kommunale Zeitpolitik für Familien: Ein Leitfaden für die Praxis: Familien unterstützen, Standorte sichern, Unternehmen fördern”, Berlin.
- Mückenberger, U., 2011, “Local Time Policies in Europe”, Time and Society 20(2): 241-273.

#### 5장 기적을 이룬 시간, 기쁨을 잃은 시간

---

- 다니엘 튜터, 노정태 옮김, 2013,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문학동네.
- 엄기호, 2013,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따비.
- 데이비드 타이악·래리 큐반, 권창욱·박대권 옮김, 2011, 『학교 없는 교육개

혁』, 렉스미디어.

- 김문수, 2011, 『공부중독 학습법』, 상상채널.
- “친구가 아니라 벌레? 서울대생의 한심한 왕따문화”, 국민일보, 2013.10.14.
- “신동엽이 할 땐 ok... 9시 등교 왜 논란인가 - 9시 등교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 오마이 뉴스, 2014.8.25.
- “9시 등교 첫 시행 의정부 여중, 우리가 만든 등교시간”, 경인일보, 2014.8.25.
- “아이들 밝아졌지만 밤늦도록 뒤척뒤척... 경기도 9시 등교 1년 명암 - 학생들은 대만족, 교사들도 대부분 긍정적”, 국민일보, 2015.8.28.
- 사이토 미치오, 송태욱 옮김, 2006,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삼인.

#### 6장 예술가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

- 앙리 아르봉, 오병남 옮김, 1981, 『마르크스주의와 예술』, 서광사.
- 질 들뢰즈, 서동욱·이충민 옮김, 1997, 『포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 질 들뢰즈, 김상환 옮김,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 질 들뢰즈, 하태완 옮김, 2008, 『감각의 논리』, 민음사.
- 칼 맑스, 김태경 옮김, 1992,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도시의  
일과 버린  
시간을  
찾아서



서울의 24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지은이 김경희, 변미리, 김중진, 엄규숙, 황윤옥, 이동연  
초판 1쇄 인쇄 2016년 12월 14일  
초판 1쇄 발행 2016년 12월 21일

펴낸이 김수현

펴낸곳 서울연구원

편집 전말숙, 정지은

디자인 황소자리

인쇄·재본 현문인쇄

업무협조 김인희, 이원영, 심아름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홈페이지 [www.si.re.kr](http://www.si.re.kr)

ISBN 979-11-5700-145-3 03300

© 서울연구원, 2016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서울의 24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 지은이: 김경희, 변미리, 김중진, 엄규숙, 황윤옥, 이동연. -- 서울 : 서울연구원, 2016  
p. : cm  
ISBN 979-11-5700-145-3 03300 : W12000  
도시 사회학[都市社會學]  
도시 공간[都市空間]  
서울(특별시)  
331.47-KDC6  
307.76-DDC23 CIP2016027909